

# 洪州文化

제 10 집

洪州鄉土文化研究會

대전연구문화원 042-256-3684  
등록번호 제10집



000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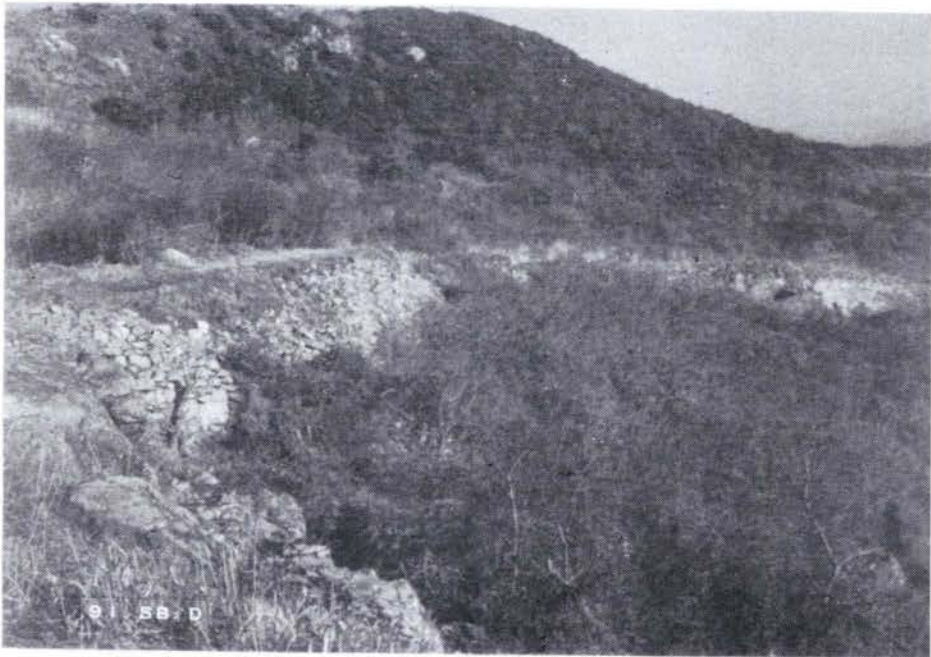
연 작 시 Ⅲ

박 문 신

.....  
任 存 城

비도  
바람도  
저 혼자 오다  
저 혼자 멧찍어 다라나 버리고  
함박눈도  
저 혼자 슬며시 녹아버리고  
아무도 간섭할이 없는  
황무지 허허벌판  
  
격새풀 흔들거리는 꽃술대  
신장대 휘두르듯 속살머리 없다

그 용맹하던 용사들  
다아 어데 가고  
폐허로운 이 성터  
鬼聲만 들리는가  
  
백제의 부흥군  
주류성과 함께 최후의 격전지  
삼만 여의 영혼들  
어디쯤 묻혔을꼬  
천여년 풍설에 간곳을 모를레라.





이 도서는 85년 2월 27일 1995. 1. 1  
로부터  
"증반안음" 고답게 제작함

제 10 호

大正

권두언 / 洪州文化祭의 활성화 / 채수철	2
내포지체의 특징과 지령의 상징 / 배동순	3
先史遺蹟과 結城地方 / 황성창	11
百濟의 文化遺蹟 / 조환웅	16
장곡면 성지주유잡기 / 김갑현	21
동학과 농민항쟁 / 주옥로	27
동학농민전쟁과 홍주전투 / 이도행	32
노은동맥 /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생가마을 / 전옥진	37
사찰 / 靈泉寺 · 龍門庵 / 박문신	51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네분의 업적 / 이견엽	53
홍주의 巫神圖 / 허 규	58
향토사 정보 / 복익채	63
편집후기 / 편집위원	69

● 표지설명: 結城縣地圖解説  
 본 지도는 結城 地方圖로 沿革을 비롯하여 10개의 掌面(장면) 自官距里와 戶口, 각 행정리 표시.  
 北距京三百三十里로 監營(감영), 兵營(병영), 水營(수영) 南距三十里와 타관 洪州, 保寧, 靑陽, 德山, 瑞山등의 거리, 山川, 橋梁, 島嶼, 寺刹, 社壇, 勸壇, 城隍壇, 邑神堂, 社會, 場墾등과 本 성지 신금성과 읍산성 또한 驛院, 蜂蟻등 유명한 古蹟, 重要 도로변, 店 등 結城지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큰 지도이다.  
 • 規格: 50cm x 70cm  
 • 形式: 摹本  
 • 年代: 1790년경  
 • 所藏: 奎章閣  
 • 解説: 結城 黃惺昌

발행일자: 1995. 1.  
 발행인: 황 규 철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 32-3613 (홍성문화원 내)  
 편집인: 박문신 · 주옥로 · 허 규  
 인쇄: 명암사 / 대표 김기종  
 표지제작위호: 정 환 섭  
 ● 이 책은 도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洪州文化祭의 활성화



채 수 철

문화의 달 10월이면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홍성에서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제9회 홍주문화제 행사가 거행됐다. 전야제 행사로는 홍성군 국악회 창립기념 만해추모 전국 시조 경창대회, 홍성군미협창립전, 청사초롱점등 홍주 주류성 고등학술토론회, 홍주문화예술제, 최영장군 영신제, 경찰대학 관현악 연주회, 관동행렬, 불꽃놀이, 풀물놀이의 10개 종목이었고, 본행사로는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홍가신 임득의 신경행 박명현 최호의 천난 5공신을 백월산의 청난사에서 산제를 올렸고, 선현생사로 무민공 최영장군 매죽헌 성삼문, 홍주청난 5공신 만해선사, 백야김좌진, 홍주의병 홍주목의 순으로 군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행렬, 경축비행, 웃도리농악시연, 대통령상 수상한 결성농요시연, 민속놀이 대회(씨름, 윷놀이, 널뛰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풀물경연, 그네뛰기, 줄넘기), 홍주골 새장터, 군민노래자랑등 26개 종목이었다. 이런 행사들은 보편적인 것들이다.

홍주골은 문화의 발상지며, 충절의 고장이 라면서 그간 특색없는 문화제 행사를 되풀이 해왔다. 이런 구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홍주 주류성(周留城)고중 학술토론회와 무민공(武愍公) 최영(崔瑩)장군 영신제를 들수 있다.

주류성은 백제부흥군운동의 근거지로서 서천 한산설, 전북 부안설, 연기설등이 있으나 1천여년이 넘도록 확정을 못짓고, 한국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예산군 덕산 출신인 향토사학자 박성홍(朴性興)선생이 김정호의 가장권의 있는 한국지

리서 「대동지지」를 근거로 20여년간 현지답사 연구 결과를 내포(內浦) 지방 향토문학연구회 주최, 홍성문화원주관, 홍성군 후원으로 홍주문예회관에서 내포지방의 향토문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인사와 군내 기관단체장, 유지, 전북 부안 향토문화연구원등 6백여명을 초청해서 홍주향토문화연구회 전국진부회장의 사회로 박성홍선생의 연구발표에 이어, 이선옥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장, 이문종 공주대학교 지리학교수,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장, 이은창 전 대전보건전문대학 고고학교수, 이호영 단국대학교 한국사교수가 장장 4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성대히 끝마쳤다. 앞으로 부단한 연구로 홍주 주류성 확정의 큰 과제이다.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출생인 만고 충신 여조(麗朝), 무민공 최영장군 영신제는 9회 홍주문화제에서 처음 거행한 매우 뜻있고 보람 있는 행사였다.

홍주향토문화연구회 주관, 홍성로타리클럽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넓은 하상주차장에 계단을 설치하고 가로 5자반 세로 7자 크기의 영정을 봉안하여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과 홍주골 유림들의 군민 천여명과 함께 제향을 올리고 이어서 홍성 경신회 주관으로 최영장군 동양최고 산신령을 제향하는 무속행사로 성대히 이었다. 이 행사는 이번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앞으로 철저한 고증으로 연구개발하여 「홍주문화제」하면 「최영장군 영신제」라는 충절의 고장 홍주골의 특색있는 문화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겠다.

■ 저 자 약 력 (● 채 수 철)

- 1927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 출생
- 교원생활 46년 국민학교장 정년퇴임
- 홍주향토문화 연구회원

- 홍동 조양문화재 보호위원회원
- 홍동면지 편찬위원
- 대한노인회 홍동면 분회장

## 內浦地體의 特徵과 地靈의 象徴

배 동 순

### ● 목 차 ●

#### Ⅲ. 내포는 광명문화의 시원지

##### 6) 내포는 달의 공진현상(共振現象) 지대

- (6-1) 내포의 산수맥은 인체의 신장부위와 같다.
- (6-2) 백십자의 상징(象徴): <달의 팔괘현상>지대이다.

##### 7) 양백(兩白)의 월산은 내포문화의 중심(中心)지대

- (7-1) 백십자·월십자(白十字·月十字)의 중앙은 일월산(日月山)이다.
- (7-2) 내포지역은 불달문화(光明文化)의 발상지이다.
- (7-3) 일월산 월량(月亮)에서 도덕이 밝아지고 있다.

### Ⅲ. 내포는 광명문화의 시원지

#### 6) 내포는 달의 공진현상(共振現象) 지대

(6-1) 내포의 산수맥은 인체의 신장부위와 같다.

모든 사물(문화적인 것)에는 출현이 있고, 출현에는 그 바탕이 되는 자연과 인물의 시공적인 계기의 질서가 뒤따르는 법이다.

내포라는 지역풍토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주민들에게서 꽃이 핀 문화가 내포문화인 것이다. 내포문화는 한국의 일반문화와 다른 지방문화 즉 개별성의 문화이다. 이 문화는 어디에서 싹 텃으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문화의 시원은 먼저 그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 내포의 문화는 홍주지역 이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홍주 고유의 문화이며 전통문화이며 향토문화이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땅(山川)은 인간문화의 시원(始源)이다. 인간이 사는 자연적인 지형·기후 풍토는 그 지방문화의 모체가 된다. 그 땅의 지자기적(地磁氣的) 공진주기(共振周期)가 인간의 심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땅과 사람과 기후가 이루는 신성기하학적 삼합의 묘체에서 기(氣)가 영키고 혼(魂)이 잉태하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서 크게 기가 도사리고 혼이 깃들인 곳 그 곳에 표대(標的)을 세우면 그 영역이 자연히 확정된다.

내포지역 상징하는 지역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 지방지도만 보아서 알 수가 없다. 국지적(局地的)이고, 분석적(分析的)인 분자상태를 살피고 대국을 찾아 한반도의 지도를 관망할 까닭이 있다.

물론 세계지도 상으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 위치에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반도만큼 산세구조가 짜여진 곳은 없다. 한국전체에서 충남을 보고 호서의 서해안을

보고 내포지역을 살펴보면 그 맥락의 진수를 통찰할 수 있다.

산세구조를 보면 차령산맥(車嶺山脈)이 골반뼈로 되어 있고, 태안(泰安)반도가 옥경(玉莖)으로 되어 있고, 오서산(烏棲山) 하부(聖住山落脈)가 음낭으로 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내포지방이 바로 인간의 신역(腎域)이며 생생의 근원이고, 생에너지의 분출처임을 알 수 있다. 지형의 명맥이 상징하는 바를 좇으면 경기도는 인간의 내장부위로 한국의 중심문화가 꽃피고 충청도의 문화는 차령산맥의 이동에 공주권문화와 그리고 서쪽에는 홍주권문화(내포문화)가 각각 떠 오르게 되어 있다.

내포의 지형에는 배설작용을 하는 포구가 많다. 내포의 지형은 그대로가 내포이다. 포(浦)는 내와 바닷물이 닿는 지역이다. 그래서 포를 개(포:개)라고 한다.

개(포)가 없으면 어물도 배도 못들어 온다. 갯물이 들어오는 까닭은 달의 영허에 따른 조수의 밀고 끌어당기는 현상이다.

이 내포지역에는 냇물과 갯물이 합류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그만큼 달의 호흡과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내포지역이다. 달의 입김을 조수의 현상을 보고 느낄수 있음은 지구와 달이 함께 호흡하는 것을 갯가에 가서야 알 수 있다.

마치 폐에서 가스교환이 이루어지듯이 육지와 바닷물이 접하는 곳에서 달의 기운이 와닿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지는 조수의 오감에 따라 쉴새없이 배설하고 자정(自淨)하게 된다.

과도에서 달의 호흡을 느낄수 있다고 하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들물에 실려오는 배의 모습에서 그리고 썰물때 배가 나가는 데서 달이 운동하는 것을 직감한다. 이 현상은 개(포구)가에서 달과 지구가 한 식구임을 직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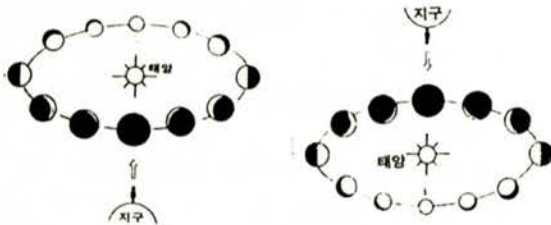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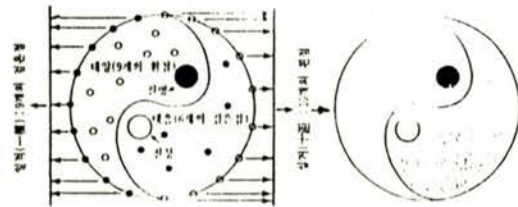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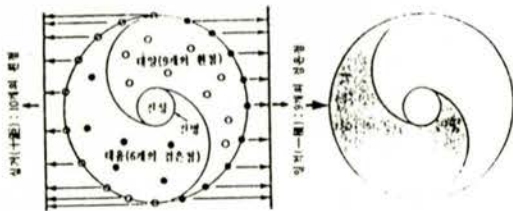
여기에서 포구가 흡사 인간의 신장기능과 같이 배설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포구가 많이 밀집된데서 배설이 잘

됨을 알게 된다. 바닷물과 내수(육수)가 합하는 포구에서 까스교환 및 신진대사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대가 한국에서도 내포지역이란 것은 한국의 지도를 보면 더욱 실감이 간다.

그 징표를 두가지 예에서 알 수 있다. 하나는 산맥이요, 다른 하나는 포구에서이다. 내포지역의 산맥이 흡사 사람의 신장과 같음을 백십자의 설명에서 여실히 실증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포구가 많은 예를 들기로 한다. 그중에서도 포구가 많은 태안군(泰安郡)을 선정하기로 한다. 태안군은 포구도 많고, 나무도 많고, 또한 배(船)도 많다. 태안군에는 개:포(浦)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무려 60곳이 넘는다. 면별로 개:포의 통계숫자까지 나열할 까닭도 없다. 왜냐하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리는 천리포가 있고, 또한 만리포가 있으니 수개념이 너무나 풍부하다.

(6-2) 백십자의 상징(象徴): 〈달의 팔괘현상〉지대이다.

1) 백궁(白弓): 흑궁(黑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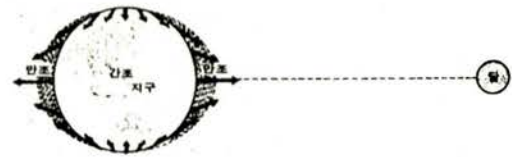
현빈(玄牡)이란 노자의 곡신현빈(谷神玄牡)에서 말하는 원시지모(原始之母)를 가리킨다. 현빈은 달의 어두운 면(暗黑面)으로 우주 인류의 기본 모친(母親)이라는 곳이다. 흑월(黑月)은 점점 변하여 백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류가 한결 같이 천지의 근(根)이라 한다.

### ● 기 조력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起潮力)이라 하며, 지구 외부에 있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생긴다.

기조력의 크기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와 천체간의 거리의 3제곱에 반비례한다. 달은 태양에 비하여 질량은 작으나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달의 기조력은 태양보다 2배 크다. 따라서 조석은 달쪽과 그 반대쪽이 항상 만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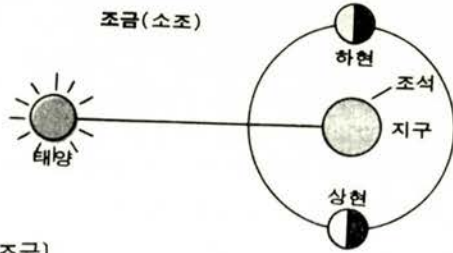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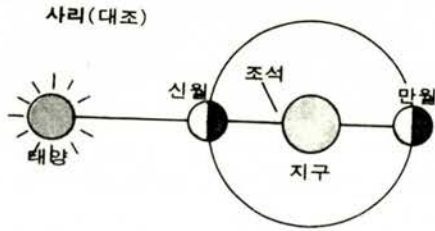
해수에 미치는 기조력은 지구상의 모든 점에 똑같이 작용하는 원심력(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 운동할 때 생기는 힘)과 모든 점에 다르게 작용하는 달의 인력 사이의 차이이다.



(달에 의하여 생긴 조석 현상)

### ● 사리와 조금

어느 해안의 조차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음력 한 달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음력 보름이나 합삭 때에는 달, 지구, 태양이 같은 선 위에 있게 되므로, 달과 태양의 힘이 합쳐서 가장 큰 조차가 되는데 이것을 사리(대조)라 한다. 태양과 달이 직각방향에 있을 때(상현과 하현) 작용하는 힘이 서로 상쇄되어 조차가 가장 작아지는데, 이것을 조금(소조)이라 한다. 사리와 조금은 각각 1삭망월에 2번씩 일어난다.



[사리와 조금]

한편 곡신(谷神)이란 월량의 공허부위인 흑면(黑面)으로서 흑월도 되고 백월도 되는 현빈(玄牡) 고동이라 곡신의 그곳에서 천상의 도(道)라 할 수 있는 달(月)이 상현(上弦)과 하현(下弦)으로 반궁(反弓)하면서 변화한다.

노자 제64장에는 <천지도(天地道)는 활(弓)을 벌려 놓은 것과 같다>고 했다. 북미 사람들은 달의 모양을 가리켜 백월형(白月形)의 활이라 하였고, 남미 사람들은 밝고 검은 것을 보아 흑월형(黑月形)을 활이라 하였다. 또한 북미의 Shonee인은 무장이 지닌 무술(巫術)의 활을 하늘의 흑사(黑蛇)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비기(秘記)에서 크게 언급하고 있는 궁궁을을(弓弓乙乙)도 그 도형은 달의 활모양의 변화에서 엿볼 수가 있다.

동양에서 월량의 원시어는 자원(滋源)이라 하였다. 어머니의 자애(滋愛)의 근원이 달빛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월량을 <밝은 달>, <월하노모>, 월신(月神)이라 하여 왔다.

음양의 본신은 월량을 발휘하는 월체의 변화에 있다. 월체의 모습을 음과 양의 분량대로 도시하면 8괘가 형성된다. 8괘의 모습을 관찰하려면 아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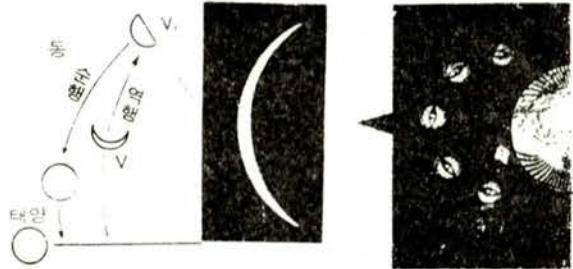
(6-1-1) 달의 모양에 음양의 두 형태가 있는데 이를 건(乾:111)이라 하고, 곤(坤:000)이라고 한다. 이것을 상(象)으로 치면 부부가 되는데 백월(白月)과 흑월(黑月)이 있다.

건궁(乾弓)과 곤궁(坤弓)이 태을(太乙)로 교구(交構)하여 씨앗(아들)을 잉태함

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생생의덕은 괘체(卦體)나 음양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괘전(說卦傳)에 「음양이 변하는 것을 보고 괘를 세운다」 주자 주역서(朱子周易序)에 「괘라는 것은 음양지물이다。」라고 했다.

### (6-2-2) 달의 괘체음양(달과 괘) (1일~15일)

- 000001...지뢰복(地雷復)... 다시 신월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지뢰복의 현상도

- 100111...풍천소축(風天小畜)... 삭(朔)이 지나서 신월이 나온다.
- 001000...뇌지예(雷地豫)... 뇌출지중(雷出地中)월출(月出)의 상이다
- 000100...지산겸(地山謙)... 초승달이 빛을 발한다.
- 011001...택뢰수(澤雷隨)... 달이 물에서 나온다
- 000111...지천태(地天泰)... 달의 상현(上弦)에 있다.
- 101001...화뢰서합(火雷筮蛤)... 밝아지는 달의 모양이다.



- 100101...산화분(山火賁)... 양이 점점 상승한다
- 101100...화산려(火山旅)... 낮같이 밝아졌다.
- 010000...수지비(水地比)... 곤(坤)이 음면(陰面)이 된다.
- 101101...이위화(離爲火)... 보름달이 천지에 환하다.

(6-2-3)

괘(卦)자와 월(月)의 상관(相關)

1. 괘(卦)는 음양의 물건이다.  
음양은 달을 가리키고,  
괘는 또한 달을 가리킨다.
2. 괘체(卦體)는 월체가 된다.  
64괘는 64개의 달모양이다.
3. 옛날 괘의 이름을 규(圭)라고 했다.  
규(圭)는 64수와 상관된다.
4. 규(圭)는 양(量)을 의미한다.  
달로써 양(量)을 삼은것은 민속전설에 남아 있다.
5. 월(月)과 괘(卦)와 규(圭)는 음이 같다.  
• 월(月): gua geh  
• 괘(卦): gua  
• 규(圭): guei geh

7) 양백(兩白)의 월산은 내포문화의 중심(中心)지대

(7-1) 백십자·월십자(白十字·月十字)의 중앙은 일월산(日月山)이다.

「불기달」이라함은 보름달을 가리킨다. 홍성에 있는 백월산이 왜 불기달(光明月)이며 보름달을 상징하고 있느냐를 밝히고자 한다.

홍성에 있는 백월산(白月山)은 백십자(白十字)의 중앙에 취치하고 있다는 천의(天意)의 소치를 추찰할 수가 있다.

한국 서해안에 높은 산이 셋이 있다. 황해도의 월산과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

그리고 서해안 중앙에 오성산(五聖山: 一云烏樓山)이 자리하고 있다.

불기달의 뿌리가 되는 백월산은 오성산 중심맥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방(乾方: 西北方)에 있는 산이 월출산(月出山)이다. 이름그대로 월(月)이 시생하며 차차 상현(上弦)의 위치로 상승하는 달이다. 그래서 소음(少陰)의 달이다. 그대(對)가 되는 산이 구월산인데 이 산은 음력 23일 경의 하현(下弦)의 위치에 있다. 그 중앙에 있는 산이 태방(兌: 正西)에 자리 잡은 홍성의 백월산이다.

이 산은 상현, 하현의 중앙에 있으니 보름달이요, 만월이요, 쟁반같은 흰달이니 가장 밝은 달이다. 가장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모든 생물은 생식의 기능을 발휘한다.

가상의 내포산맥중 동서남북의 중앙지 백월산을 중심으로 구월산과 월출산이 있으니 중천에 뜬 달이요 보름달이다. 그 회고 광명됨이 '백월산(白月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해안을 종단하는 구월산과 월출산의 그 중앙에 홍성의 백월산이 위치한다. 이 선을 가시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영암의 월출산을 빼고는 4곳이 모두다 백(白)자 지명이니 백십자의 중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로운 3곳의 월자산과 동쪽의 백월산 해서 4개의 월자산이니 월십자(月十字)와 백십자의 중앙에 홍성 백월산이 존재한다.

(7-1-1) 붉-"Palg"은 박달민족의 주류이다. <호칭상으로>

백(白)은 이두로는 '붉괄(白括)'로 읽어왔다. 이것은 백(白)이 일찍부터 '불' 또는 '붉'과 같이 읽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白)은 입성(入聲)으로 운미(韻尾)의 자음(子音)이 -K로 되어 있으나 상고(上古)에는 이에 대립하는 음성의 -g가 있었으나 아니면 -rk와 같은 복합자

음(複合子音)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중기 한자음에 따르면 백(白)은 '뽉'과 같이 되어 있는데 으모음에 후속한 '으'모음은 그 전대의 -r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白)의 고구발려 대응음들 bark/ber과 같은것으로 추정하고 원(原:der)으로 간주한다. 백(白)의 재구음(再構音)의 가장 이른 시기의 음형은 biwek가 아닐까 한다.

우·욱·백·평(子·郁·白·平)이 등가적(等價的)이라는 가설에 선다면 이들은 biweg으로 소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는 적어도 서한대(西漢代)보다 앞선 시기의 차용음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우·욱·백·평(子·郁·白·平)의 상고음은 b-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b-는 고구려의 b-에 대응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백(白)의 고음이 bark이니 '북-pʌlg'과의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박달(bak-tar)'을 중심으로 하여 살던 부족의 이름으로 전용되고 다시 이러한 분파의 취락명 진산(鎭山)명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배달민족이란 호칭은 '백천(白川)'이 '배천'으로 읽히듯이 음차(音借)한 한자음의 변천에 따른 '박달(白山)'의 와전이 틀림없다.

배달(倍達)을 배달이라 쓰는데 이 배(倍)는 옛음이 bag이었으니 실은 「배달」도 '박달'의 유사표현인데 후세에 변한 음대로 읽다보니 배달이라고 읽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에 '태백산(太伯山)'이 '태백산(太白山)'으로도 표기되는데 백(伯)과 백(白)만은 음차(音借)임이 분명하다. 「중국어 음운론(中國語 音韻論)」에 의하면 백(伯)의 상고음(AD. 600년경)이 pak이고, 백(白)의 그것은 bak이며 이들의 만주음(滿洲音)이 모두 bab>p의 변화가 예상되니 '백(伯), 백(白)'의 우리 고음은 함께 '박(Pak)'이었을 것이다. 진산

취락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백산(白山)·백악(白岳)·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白山)·박달(朴達)등의 산명, 지명이 그 지역 일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7-2) 내포지역은 불달문화(光明文化)의 발상지이다.

(7-2-1) 「백월(白月)」은 「불기달」이라는 원의는 광명의 원천

백(白)은 「붉은», 「선명함», 「빛남」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붉은」이 「붉은달」하면 명월(明月)이 되니까 문법적으로 순조로운데 「불기달」하면 난점은 「불기>불기」가 달을 수식하는 연체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기는 연체형은 될 수 없을 망정 명사형으로서 형용사적 위치에 설 수는 있다. 우선 불기란 말이 「굿불기·히불기·들불이(始明·日月·月明)」등에서와 같이 「용언+」의 명사형을 이룰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백고몽 국인이 장자발기불초 공립이이 모위왕

(伯固蒙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백고가 돌아갔을 때 나라사람이 장자「발기」의 불초함을 이유로 「이이모」를 공립하여 왕을 삼았다. 『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故國川王)』

여기에서 「발기(拔奇·明)」는 「불기」가 된다. 이런 예는 원효의 성지 「발지(發智)」는 「불디(불기의 원음)」이다. 원효(元曉)는 「새배」혹은 「굿불기」의 전도어 곧 「붉이의 들」이니 언제나 명월이면 「붉이들」아님이 아니다. 이렇듯 강조적으로 특히 「불기들」이라 함은 주로 보름달을 가리킨다.

「보름달」과 「불기들」은 그 성어적 구성이 실로 간불용발(間不容發)의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 된다.

(7-2-2) 『붉달』문화의 연원은 내포의 진산(鎭山)에서

태양의 광명(光明)을 좋아하는 우리 겨레는 대집단이나 소집단을 막론하고 이동 정착할 때에는 그 정착지와 주산을 대개 광명한 산악 조양의 땅이라는 의미로 '백산(白山)' '백악(白岳)' '조산(朝山)' 등의 의미로 불렀다.

'아사달(阿斯達)' 이 혹은 처음 도읍지로 혹은 이도처(移都處)로 혹은 은거지로 여러번 나오는데 이 아사달의 '아사(阿斯)'는 '아침'을 '달(達)'은 '산' 또는 고원지대를 말하는 우리말의 한자음 발음이다. '아사달'은 곧 해가 아침 일찍 비치는 광명(光明)의 땅을 말하는 '백산(白山·朴山·白岳)' 등의 뜻과도 통하는 것이며 국호 조선(朝鮮) 또한 조양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뜻은 '아사달(阿斯達)'과 같은 것이다.

환언하면 '아사(阿斯)'는 '조(아침:朝)'이며 '달(達)'은 고어의 산이요, 곧 '조산(朝山:아침산)' 밝은 산이므로 일명 '백산(白山)'이라 하였고, '태백산(太白山)'에 강립한 '태백(太伯)'은 한 밝기니 대광명산이라 천신(天神)이 강립한 신산(神山)을 뜻한다. 우리겨레는 하천문명기원(河川文明起源)이 아니라 산악문명기원사상(山岳文明起源思想)이었던 것이다.

'붉(白)'이란 『밝기사상』은 실은 이고장 정신문화의 원천으로써 우리 내포문화사는 이 『밝기정신』의 선양과 맥을 함께 한다.

이 『밝은 문화』의 사상은 내포지방의 구원한 생명의식의 자각이며 생활이상의 표상으로서 실로 내포정신문화의 착근(着根)처가 되는 곳이다.

(7-3) 일월산 월량(月亮)에서 도덕이 밝아지고 있다.

역경(易經)에서는 도(道)를 가리켜 월량(月亮)이라 하였다. 진괘(晉卦)의 명출

지상(明出地上), 익괘(益卦)의 기도대광(其道大光), 간괘(艮卦)의 기도대광(其道大光), 명이괘(明夷卦)의 명입기중(明入其中) 등등의 문장은 도(道)와 월(月)의 상관, 즉 도가달, 그것임을 지칭하고 있다. 월재천상출현 28천(月在天上出現 28天)은 새 달이 나온다는 말이다. 새 달이 나올 때 배월(拜月)하는 풍속은 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인도·대양주·바빌로·유대·북미주·아시아·한국 등 여러 곳이었다.

티베트에서는 달(月)을 [da(da-ua)] <da=月, ua는 어미>, 고대 묘족(苗族)은 [tao(道)]가 월(月)을 대신했다. 에집트에서는 [thot]가 곧 월(月)이요, 월신(月神)이었다. 남양의 여러 성에서는 [Dao(道)]가 월량(月亮)이었다.

북미 Kato인은 월량(月亮)을 Tenagai라 한다. Te(月) nagai(行走者)로서 월량을 <크게 가는 자>라 하고 있다. 티베트는 Zla, 몽고에서는 Sara라 한다. 동양에서 월량의 원시어는 자원(滋源)이라 하였다. 어머니의 자애(滋愛)의 근원이 달빛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월량을 <밝은 달>, <월하노모>, 월신(月神)이라 하여왔다.

노자는 도신(道神)을 가리키어 천하만물지모(天下萬物之母)라 하였다. 고대인이나 미개토인들은 식물의 종자가 Dao(道)의 정(精)이며, 발아(發芽)와 성장(成長)은 월신·월모·월량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Dao(道)란 신화(神話)로서 인격적 월량, 월신(月神)에 관계되어 원시조모(原始祖母)를 가리켜왔다(Munsberberger, 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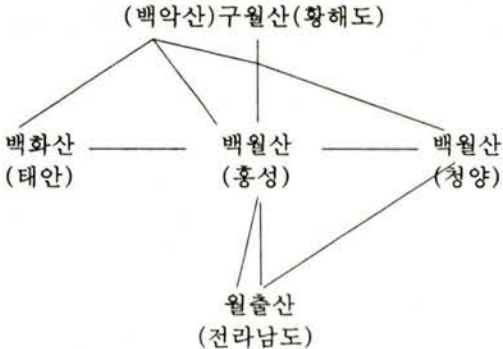
그외 여러나라 말에서의 달이란 말 [Kado Kato, Kita Keda]의 [Ka, Ke, Ki]는 관형사이고, [do, to, ta, da]는 도(道)의 정자(正字)이며, 바로 이 도(道)는 달(月)과 상부(相符)되어 왔다. 달이 월사부생(月死復生)하면 원시족들은

노래와 춤을 추며 부생(復生)의 제(祭)를 지냈다(Tessmann, pp.155-175)한다.

(7-3-1) 월모(月母)는 농경문화의 시원이다.

일체 식물의 모친(母親)은 토지가 아니고 월량(月亮)이다. 이것은 인류에 있어

(그림 13) 백십자 월십자의 도식도



서 농업초기의 일종상법(一種想法)이었다. 또한 달은 인류의 어머니(母)라는 전설이 있다. (Briffault, 11, p.59).

북미 사람들은 월량을 모친이라하여 달을 가리키어 Mama quilla(月母)라 하였다. 대양주 제도 사람들도 월량을 일류지 모라 했으며, 산해경(山海經)에도 유여화 월모지구(有子和月母之國), 대황동경(大荒東經)에도 명설(明說)하여 월모(月母)라 했다. 또 노자(老子)는 광명에 복귀(復歸)하려면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守其母)고 하였으며, 매월 월량이 부상하므로 보름달이 출현하면 광명의 신 월신(月神)을 부르며 북미 사람들은 기원하였다. (Briff 11, p.563)

남미주인(南美洲人)들은 지상신명(至上神名:Mama)신이 창조한것으로 보고 있다. 달의 백광은 하늘이요, 흑면은 땅으로 보아, 월신에는 백월의 아들과 흑월의 여자가 있다고 북미 Huron인들은 말한다. 남양 Batu토인은 Dao(道)를 노모(老母)라 한다. 중국의 반고신화(盤古神話) 치우가 달에 나타난 신화 인물의 화제를 보

면 월량신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

고대어 천지신(天地神)을 상제(上帝)라 호칭하였으며, 도신(道神)은 천지(天地)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고대문화에서 도와 상제를 병행해 왔다. 그러므로 도와 빛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역경에서 추출하여 보면, 진괘(晉卦), 명출지상(明出地上)…도미광야(道未光也) 쾌괘(快卦), 중미광야(中未光也)…합괘(咸卦) 미광대야(未光大也)…태괘(泰卦) 이광대야(以光大也)…삼천(三天)은 보아도 볼 수 없기때문에 월량(月亮)이라 하였다.

도(道)라는 글자는 월량(月亮)을 가리켰고, 또한 일위대신(一位大神)을 가리켰다. 고대 농업문화속속에 있어서는 큰 신이 월량에 거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와 월은 생산의 어머니로 보아왔다. 월신은 원시조모(原始祖母)요, 월량(月亮)의 도리를 지니고 있는 종자의 어머니이다. 종자의 발·아·체(發·芽·體)이며, 종자의 생장체(生長體)이니 만치 월량의 광명이 만물의 성장에 관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농업문화는 월량(月亮)의 업신(業神)과 신토불이의 관계에 있다.

업신은 만리(萬理)을 일과적으로 장악하여 씨의 유전인자를 관리하며, 씨의 유전인자 활성화에 관여한다. 씨는 DNA라는 유전성분을 가지고 담백질속에서 아미노산의 배치에 관여한다.

이 아미노산의 배열 여하가 수다한 생물의 생명개체를 규정할 것이며, 월량의 생생지덕원 실로 막대하다. 이 월량(月亮)은 일광과 함께 업신이 아닐수 없다. 또한 생산의 어머니는 농경문화의 발전과 함께 월모(月母)의 생생지미(生生之美)를 더해 갈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城)이라 고치고 현으로 강등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太宗 十三年) 13년 즉 1413년 예에따라 현감(縣監)을 두었다. 장면(掌面)은 현내 가차산, 광천, 두암, 은하, 굴목(屈木), 화산, 용천, 상서, 하서등 10개 면(面)이다.

1895년 5월 지방제도 개혁에 홍주부 결성군이 되었다. (전국 336개군의 하나)가 이듬해 1896년 8월 23부제 대신 13도제가 시행되어 결성군은 4등군에서 3등군으로 (홍주군 2등군) 존속하다가 일제 1914년 6월 1일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하여 홍주의 洪字와 결성의 城字를 따서 홍성군(洪城郡)이 되어 결성은 면이 되었다.

이곳은 일찌기 선사문화의 맥을 이어 받은 결성지방의 유명한 내력이 근세까지 전하여 오는 몇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員)님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 즉 이곳 수령(守令)이 벽지배치라고 좌천이라하여 울고 이임(離任)시에 조용하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곳을 떠나기가 싫어서 울고 간다.

또한 이곳은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2) 특히 3정승(三政丞) (오윤겸(吳允謙), 남구만(南九萬), 김상복(金相福)) 등이 낳은 곳이라서 메기나 가물치가 살지 못해서 이곳은 없다한다. 또

(3) 제(第)1 청양(靑陽), 제2 결성이란 말이 있다. 살기좋은 평화로운 곳이라서 또는 향교(鄕校) 자리가 최고 유명한 곳이라서 희귀하게 불리웠다 한다.

(4) 효자 열녀, 삼효열(三孝烈)의 가문(장명항:張溟禔)판관을 비롯하여 많이 나온 곳이라서 더욱 유명하다고 한다.

(5) 생결성(生結城) 사대흥(死大興)이니 사결성(死結城) 생보령(生保寧)이라고도 한다.

(6) 해창개(海創) 또는 성남계 특히 능쟁이 맛이 일미(一味)이라 한다.

(7) 어염시수(魚鹽柴水) 즉 해물과 소

금 나무 물이 풍부하고 질이 좋아서,

(8) 특히 물이 최고 좋아서인지 술인 두견주(杜鵑酒)가 결성과 면천(沔川)에서 만이 잘되어 이 술을 진상(進上)하였다 한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 받은듯 현재에도 결성 양조장 술맛이 좋기로 유일하여 경향각지에서 이 술을 즐겨 찾고 있다. (결성명산 막걸리와 동동주) 이런 현상은 이곳의 역사적인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9) 또한 유명한 결성농요(結城農謠)는 일찌기 농경문화(農耕文化)발전의 농부가(農夫歌)가 농사일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로 발달하여 어려움을 소리와 놀이로서 극복하여 즐거움으로 승화하는 놀이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곳은 음악의 대가 최선달(崔先達)과 김창용(金昌龍)등의 후예들이 즐겨 불려온 농요(農謠)를 지난 93년도 제34회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면민 140명이 열띤 출연으로 당당한 종합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더욱 유명해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히 중요한 선사유적지 몇개 지역만을 요약하여 유적(遺蹟)현황과 유물(遺物) 본 위로 소개하고자 한다.

## (一) 신금성지(神衿城址)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797번지 일대 속칭 비니티 혹은 분의티 필자가 10여년간 조사연구중 당시 본 군 민방위과 서봉식(徐奉植)과정의 협조로 충대 박물관 장 성주탁(成周鐸)교수의 특별한 배려로 성(成)교수를 단장으로 조사위원 최근묵(崔謹默: 충대 백제연구소장), 차용걸(車勇杰: 충북대 교수), 조사원 공식구(孔錫龜: 충대조교), 박태우(朴泰佑: 충대조교)등이 1987년 5월 8일부터 신금성과 결성읍성의 지표조사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자료 조사에서 많은 백제토기와 무문토기 또는 석기편등 유물로 봐서 백제시대 결기현(縣)의 치소(治所)로 사용되

있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신금성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고, 8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로 7월과 8월에 성의 축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벽과 북벽(北壁)을 TRENCH(절단) 조사함과 아울러 북문지와 남문지 일대 조사로 북문지 초석(北門址 礎石)과 암거시설등을 확인하였다.

2차 조사는 90년 11월~12월 성토향 후 구간에 석열(石列)을 놓고 관측한 형태와 성체 하부에서 저장공 토광묘등을 조사하였다.

3차 조사 92년 8월 6일~ 10월 14일까지 관측토류(版築土壘)의 원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보고서 완성중)

조사내용 성내부 유구= 노출된 유구는 저장공 4-5기 주거지 3기 성격 미상의 부정형 견혈유구(堅穴遺構) 1개소등이다.

주요 유물은

- 1) 삼족기(三足器) 10여점
- 2) 고배(高杯) 회색 연질고배 3점출토
- 3) 흑수(黑袖) 전문도기(錢文陶器)

; 서울 몽촌토성(夢村土城)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한 형태의 토기편으로 3C말~4C초의 서진(西晉)시대것으로 보인다는 이론이다.

각사서(各史書)와 읍지(邑誌)의 기록은

홍무삼십년 정축이읍신금성  
(洪武三十年 丁丑移邑神衿城)

건문이년경진이읍산성  
(建文二年庚辰移邑山城)

신금성토축주일천삼백오십척 금제  
(神衿城土築周一千三百五十尺今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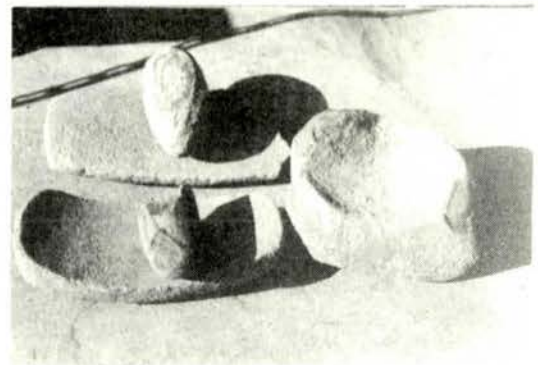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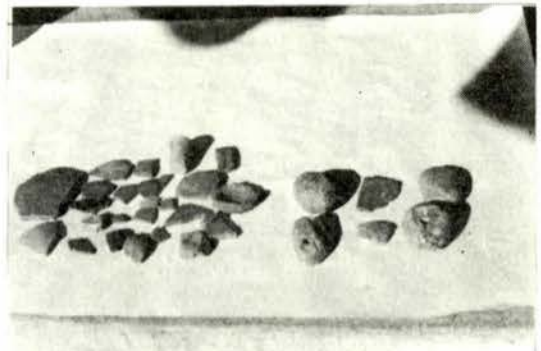
## (二) 역타굴 패총(貝塚)과 지석군(支石群)

(금곡리 산 8번지 일대)

신금성 앞 바로 맞은편 300여M 정도의 약간 구릉평야지대이다. (현, 나래목장지역)인데 고인돌이 수십기 산재한 야

산인데 5년전에 아래위를 개간하여 거의 파괴되었다. 이곳은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역터굴이라 지칭한다. 역촌의 해문역(海門驛)설치전에 고려때까지 역터라고도 전하나 초분골이라고도 하며 현재까지 출토(出土)유물들을 학자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유물이 분명하다 한다. 지금도 지표상이나 땅을 파보면 무문토기 석기로 마곡석, 석검, 석촉(石鏃)등 패각과 같이 출토된다.

필자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역터란 말이 선사시대 부족국가 치소가 아닌가 한다. 충대를 비롯하여 학계의 주목이 되고 있다.



▲ 출토유물

## (三) 원천패총

● 위치: 결성 금곡리 원천 14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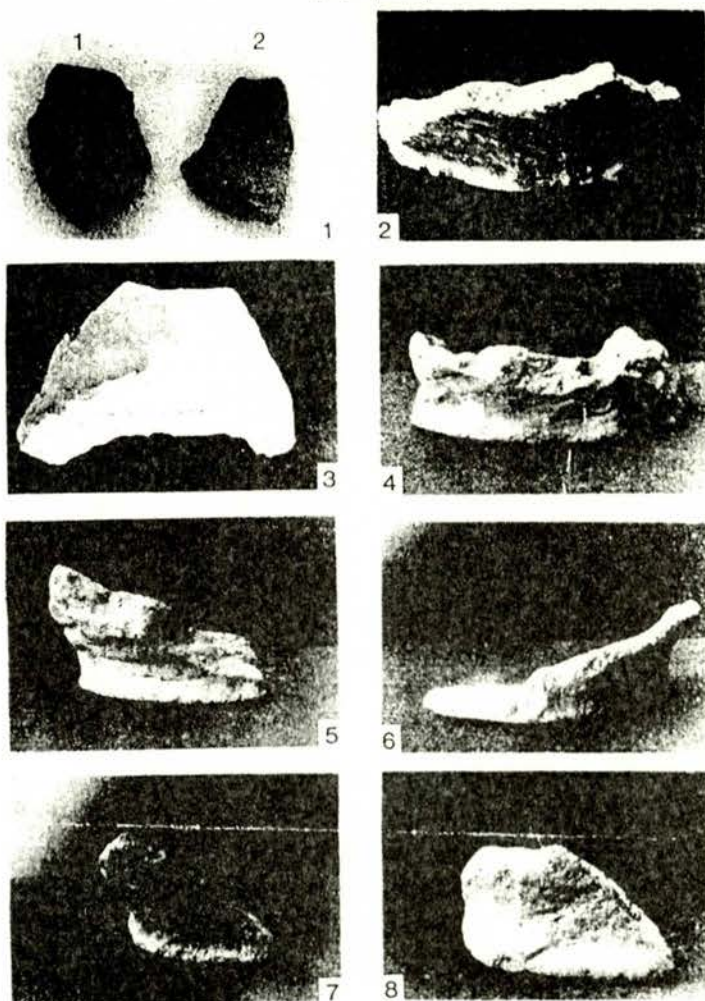
적지(赤地): 역터굴에서 2~300M 남동쪽 아래지역이다. 역터굴 출토유물과 비슷하다.

석기로 석부(차돌도끼) 석촉(石鏃) 필자 보관 민무늬 토기, 홍도 또는 빛살무늬 토기등 많은 유물(遺物)들이 출토되어 층대에서 발굴 조사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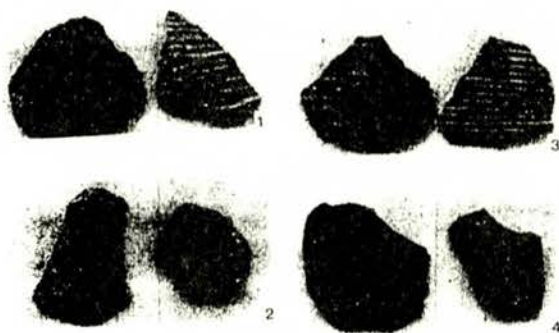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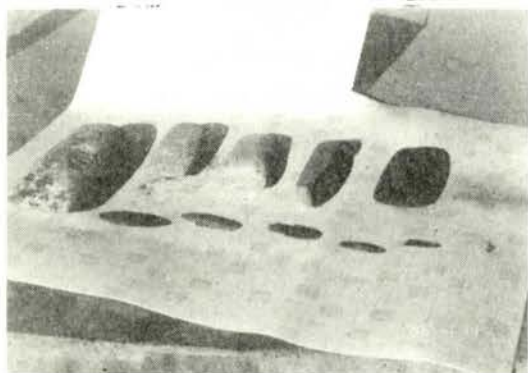
대전시 향토사료관 학예연구사 윤환선생과 공동조사한 토기와 석기편 사진

(大田市 郷土史料館學藝研究士 尹煥先生과 共同 調査한 토기와 석기편 사진)

▼ 민무늬토기



▼ 石 器



▲ 토기동체부



#### (四) 은하 학산 내남 패총 (銀河鶴山內南貝塚)

행정구역상 은하면 지역이나 선사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과 연결되므로 참고로 언급하기로 한다.

이곳은 옛부터 남당이라고 한다. 옛 머내 장터위편 구릉지대로 해발 20M지대이다. 역터굴, 적지, 원천패총과 2~300M지점으로 연결토지가 많이 출토되나 원상국시대 토기라 한다. (보고서 참조)

#### (五) 나룻개 지석묘와 돌고지(石串浦)

후청동과 가곡부락 앞에서 간사지 아래 버그머리 옆 병풍바위앞 간사지 논 건너에 입석이 2개 있고 옆에 북방식으로 보이는 고인돌이 3기가 있다. 그 옆에 1백여미터 지점에 돌고지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듯 3개의 큰 긴돌을 누워 쌓고 또 옆에 큰 돌을 세운듯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석인듯 하나 근대에까지 풍어제나 무고안택제를 지내고 있다한다. 한편 선사의 항구(港口)의 표석(表石) 또는 입석(立石)이라고도 하는데, 일부 사서(史書)에 석천포(石串浦)라고 기록하였다. 부석신앙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위치는 비교적 낮은곳으로 해수의 만조시는 일부분은 물에 잠길 정도이다. 근대에 학계의 큰 주목이 되는 고적(古跡)이다.

이외에도 형산리 주교부락에서도 마곡석 반월석도(半月石刀), 석부동(조운선선생 소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석기시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주거(住居)지로 봐진다. 이외 결성문화권으로 지석묘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적지는 은하 금리(바위 안집)을 비롯하여 거산과 대울리 구항 태봉, 내현, 공리등지 100여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석실묘·석관묘(石室墓·石棺墓)등이 결성의 진산인 칭산(秤山)과 과

청용산(靑龍山)등 능선에 골고루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특히 무량리 청룡산 점말주변에 100여개소가 왜정때 도굴된 상태로 남아있고, 성남지역리 919번지와 성호리(星湖里) 후청동(后淸洞) 봉동(峰洞)산 18-2번지.

1989년 공주대 14기 발굴 조사 결과 6세기경 축조라 한다.

보고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외에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지면관계로 이만 줄이고 다음에 연결되는 사항을 자세히 발표 예정이오니 양지바랍니다.

# 百濟의 文化遺蹟

● 洪城郡 長谷面을 中心으로

趙 煥 雄



1. 머리말
2. 長谷의 歷史的背景
3. 文化遺蹟

- 周留城
- 鶴城山城
- 石城
- 胎封山城
- 群尼城
- 天台山城
- 驪陽縣城
- 참뱅이 南星재 土城
- 新東里 土城
- 內淡里 土城

4. 맺는말

## 1. 머리말

요즈음 장곡면에는 보이지 않는 서기(瑞氣)가 돌고 있다. 이는 루대료 세거(世居)해온 나에게는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한다. 때로 농촌이 지켜워 도회지로 나가볼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는 고향을 지키고 살어온 것이 더욱 잘했다는 마음이 든다.

이는 장곡의 산성리가 백제부흥운동 당시 “풍왕백제국(豐王百濟國)”의 왕도지(王都之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94년도 봄에는 이상선 홍성군수, 이병

칠 군의회의장 및 전 군의원, 각급 기관장과 문화재 관리국 김동현 자료연구보존실장, 윤홍료 문화재 전문위원과 지역주민등 100여명이 우리 고장 장곡면 산성리의 백제성지 주류성을 답사했고,

또 가을에는 홍주문화 회관에서 주류성 고증학술회의를 윤주상 내포문화연구원합회장, 바개권 전 충남도지사,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실장과 각 대학 역사학 교수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장곡면의 주류성 학술발표회를 갖었다 함은 도단위 기관에서도 할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는데 더욱 자부심을 갖는다.

장곡지역은 충남 방향으로 뻗어있는 차령산맥의 동서쪽 오서산(烏棲山)을 중심으로 지세가 항구적으로 막히어 끊기었고, 또 큰 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으로부터 방어에 적합하여 예로부터 어떠한 난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해양성 기후에 비가 알맞게 내려 영농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천연의 지역조건의 혜택을 받아 주민들의 생활이 여유있고, 따라서 인심이 순박하여 살기좋은 곳이므로 일찍부터 先史文化가 形成되어 온 곳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색을 배경으로 과거부터 내포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長谷의 古代文化 유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長谷面 관내에는 옛 城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古代 城址文化유산이 꽃을 피우고 있다.

이같이 일찍 先進文化를 접할수 있는 地形的인 특성은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연구할수 있는 기록이 전무한 점등이 안타까운 일이다.

山地개간과 農地정리하는 과정에서 우

연히 발견된 대부분이 파손되고 또한 유적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학술적인 研究에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장곡면 도산리 향토사학가 김갑현 선생께서 자료를 정리하여 발굴보고서가 작성되어 學界의 研究에 일조가 된것은 長谷地域 文化發展에 견인차역화이 되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같은 長谷地域의 百濟 周留城 研究의 영세서울 脫皮시켜준 것이 바로 사학가 박성홍 선생의 노고이며 長谷地域의 百濟 周留城 研究의 윤곽과 그 기틀을 확립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1995년도 국비 3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을 研究 사업비로 내정되어 국사편찬위 사료실장 최근영 박사침의 일차 답사는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 하겠다.

## 2. 長谷의 歷史的背景

長谷面은 洪城郡의 2邑 9面중의 하나로서 東으로는 靑陽郡, 西로는 光천읍, 南으로는 烏棲山 그리고 北쪽으로는 禮山郡과 접해있으며 면 전체를 산동(山東), 산서(山西)로 분리하고 있다.

광천, 청양을 있는 614호선의 지방도로로 볼때 장곡의 관문으로서 면적은 55.09km<sup>2</sup>이고, 인구는 6천여명이다.

長谷面은 본래 洪城郡 남단에 위치했다. 朝鮮朝의 高宗 32년(1895) 地方行政區域 개편으로 洪城郡에 편입되어 烏史面, 城枝面, 西谷面, 兪方面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烏史面은 現 화계리, 광성리, 오성리, 죽전리, 가송리 城枝面은 도산리, 상송리, 신평리, 신동리, 西谷面은 지정리,

월계리, 행정, 천대리, 산성리 2구 일방면은 산성리 1구 옥계리,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용천리, 방한리,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를 관할하여 오다 日本强占期였던 1914년 그들이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4개면을 통합하여 長谷면이라 칭하고, 16個里로 改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文化遺蹟

洪城郡 관내에는 옛 城址가 30여곳이 있다. 그중에서도 長谷에 산존되어 있는데, 城址는 鶴城山城, 石城山城, 天台山城, 蘇群尼城, 참뱅이 남성재 토성, 내담리 토성, 태봉산성, 신동리 토성등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다른면에 비해 많은 이유는 그 역사적으로보나 氏族의 생활 터전으로서의 好適한 곳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이곳에서 古代文明이 定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석성과 토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산성의 名稱은 더욱 생소한 이름이었다. 장곡일대에 현존해있는城址 유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 周留城(주류성)

AD 660년 7월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百濟가 멸망하자 전국에서 그 유민에 의한 조국부흥을 위한 항전이 벌어졌다. 모로루성(古牟婁城)과 임존성(任存城) 등에서 달솔(達率), 여자진(餘自進)과 은솔(恩率), 복신(福信), 도침(道琛), 흑지상지장군(黑齒常之)등이 조국 부흥의 의병을 일으키니 10여일 사이에 3만 兵士가 모여들었다. 이 兵力이 663년 11월 任存城이 함락되던 때까지 만 3년간 백

제 부흥전의 주축을 이룬 것이다.

복신과 도침, 여자진등은 日本에 장기 체류중이던 의자왕(義慈王)의 王子 풍장(豐璋)의 환국을 요청하니 日本王 天智는 661년 9월 장수 사이 노무라지와 에찌노다구쓰로 하여금 5천 兵力으로 그의 환국을 호송케 하였는데 이 一將들도 663년 9월 周留城이 第2次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함락되던 때까지 豐王과 같이 周留城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周留城은 復興軍의 총지휘본부이자 豐王의 王城이기도 하다.

豐璋이 환국하자 百濟유민들은 이를 王으로 받들고 사기가 충천하여 거센 항전이 계속되어 한때는 200여 城이 수복되고 웅진(熊津- 合州)과 사비(泗水- 扶餘)에 머물던 1만 당군과 7천 新羅兵은 파멸의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된다.

풍왕은 「周留城은 험하고 불편하여 방어에는 적합하나 농사에 적합치 않아 生活이 염려된다.」하여 662년 12월에 王城을 피성(避城)으로 옮긴다. 그러나 곧 신라병들이 사평성(沙平城)을 공격 점령하였다. 不安하여진 풍왕은 천도 3개월 만인 663년 2월 다시 周留城으로 되돌아 왔다.

이무렵 百濟 진영내에 모함이 있어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복신은 풍왕에게 살해당하는등 내한으로 명장들이 제거되었다. 이틈을 이용하여 신라의 문무왕(文武王)은 康軍들과 연합하여 663년 7월 17일 경주를 출발 周留城 공략에 나섰다. 이리하여 663년 9월 7일 주류성이 함락하니 주류성에서 항전하던 백제의 유민들은 백제의 “이름은 끝이 났구나.” 언제 다시 조상의 땅을 밟아볼수 있을 것이나 눈물지며 침복기성(枕服岐城: 참뱅이- 장곡면 광성리)에 머물고 있던 처자식을 거느리고 무대의 데레 성(장진

군 기지시)에서 일본이라는 신천지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렇듯 周留城은 백제종말기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이며, 장곡면의 자랑인 것이다. 주류성은 장곡면 山城里의 鶴城山城과 장곡면 山城里의 石城山城등으로 이루어진 산성과 장곡면 대현리 일대를 말한다.

#### ● 학성산성(鶴城山城; 두루미성)

行政上의 洪定地名으로는 장곡면 山城里 山8번지. 학성산(鶴城山) 산정에 있는 백제석성이다. 백제부흥전의 중추이던 주류성의 主城이다. 북쪽 2km쯤에 천태리 양곡 태봉산성과 상접하고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약 1300m의 석축성으로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 ● 석 성(石城)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하는 주류성의 주성이며, 학성의 남단에 인접하고 양성중학교 서쪽 계곡이자 대현리 동쪽산정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암벽을 성벽으로 활용하고 둘레의 길이는 1800m의 석축성으로 그 대부분은 붕괴되어 있다. 성의 남쪽에 위치한 상여바위가 유명하며, 성외부에는 기단석 와편 도기편등이 발견되고 있다.

#### ● 태봉산성(胎封山城)

장곡면 천태리 양곡 태봉산 정상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아주 작은 편이다.

장곡면 천태리 소구니성 약 2km지점에 인접해 있으며, 山城 정상에서 바라보면 북서쪽의 사계를 살필수가 있다.

#### ● 소구니성(蘇群尼城)

行政上의 洪定地名은 장곡면 천태리 2구(바리미) 서쪽계곡에 위치하고 있으

며, 석축성으로 이루고 있다. 天台山城과는 등을 맞대고 있으며, 소구니성은 남쪽을 향하고 천대산성은 북쪽을 향한 위치를 하고 있다. 석축물은 城門을 중심으로 한 서쪽면과 동쪽면의 각각 약 200m석축을 쌓고 있다. 그 나머지는 자연을 이용한 성이다.

#### ● 천태산성(天台山城)

장곡면 천태리 2구(꽃바위) 천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임존성이 약 10km지점에 있다. 산정의 천태사가(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음)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성으로 석축은 입구쪽에만 쌓여져 있다.

주류성의 외곽 방어 석성이다.

#### ● 여양현성(驪陽縣城)

장곡면 광성리 골뜸

鶴城과 석성의 서쪽 6km거리에 위치한다. 오서국민학교 부근의 작은 구름을 중심으로 성중(城中), 성(城)아래 지명과 그 남서쪽으로 골뜸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지대에서 와편과(행토사학자 김갑현 소장) 청자편이 다량 출토되며 농경지의 경계에 많은 돌무덤이 있음으로 미루어 고려때의 중요한 역할의 성으로 볼 수 있다.

#### ● 참뱅이 남성(南星)재 토성(土城)

주류성의 학성과 석성의 서쪽 6km거리에 위치하는 장곡면 광성리 참뱅이 부락의 북쪽 구름에 있는 토성이다.

烏樓山의 밑으로 넓은 분지에 위치한다.

성안에 적석총 3基가 있으며, 옥뱀이, 탐뱀이가 전하여 오는 것을 미루어 볼때 지방 호족의 본거지였다고 생각된다.

#### ● 신동리 토성(新東里 土城)

장곡면 신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土城으로서 대부분이 붕괴되어 있다. 습지면으로는 석축을 쌓아 보완하기도 하였다.

#### ● 내담리 토성(內淡里 土城)

장곡면 오성리와 광천읍 담산리의 계에 위치한 토성 대략 편편한 산정부를 둘러싼 약 160간(960尺)길이의 토성으로써 붕괴되었다.

지역은 백제 문화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제적인 문화 유적지 이면서 관광명소로써 선현들의 애국 애족정신의 교육장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변 정서생활의 터전을 마련 국민 휴양지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장곡면의 긍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4. 맺는말

長谷地域은 일찍 三韓의 하나였던 馬韓文化圈에 속해 있었는데 4세기의 중엽에 들어와 마한이 百濟에 병합되므로써 우리지역은 다시 百濟문화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백제 문화권에 편입되어 300년 가까이 내려오는 동안 장곡지역은 地域的 영향때문인지 그래도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규명을 할 수 있는 기록이 전무한 탓으로 出土된 유물들을 통한 규명작업과 연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出土된 유물들이 방치되고 도굴되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보면 향토문화 회원으로써 애석한 마음이다. 또한 地域의 文化을 보존, 발전에 책임이 있는 향토문화 연구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地域文化창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연구 부족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95년 周留城 지포조사 내정은 장곡의 영광이며 큰 수확이 아닐수 없었다.

이번 지포조사를 통한확실한 고증으로 周留城으로 판명될 것이므로 우리 장곡



## 장곡면 성지주유잡기 (長谷面 城址周遊雜紀)

김 갑 현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행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생존의 뜻을 갈파한 아리스토텔레스(Arisoteres)는 한걸음 내쳐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물론 지적(知的)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진실을 알고자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쳤다고 할수 있다.

알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공통적인 관련이 있기에 내가 살고있는 이 고장은 옛날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고자 하여도 문헌이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가끔 상림에 젖어 머리속을 행하게 공허감을 느낄 때가 많다. 10여년전 국사대사전을 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장곡면 지방이 꽤알같은 글씨가 섬팡같이 크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역이 "삼한시대에 마한(馬韓)의 부락사회 국가인 사로국(泗盧國)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병도 박사의 증언글이었다. 그러고보니 남쪽에우뚝 솟은 오서산(烏棲山)이 선사시대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오서산에서 흘러가는 죽전천과 삽교천으로 흘러가는 도산천(道山川) 북쪽으로 흐르는 무한천(無限川).

참으로 천혜의 지역이요, 서쪽으로는 서해바다요, 오서산을 진원이 되는 삼계(三界)로 각각 흐르는 물은 수자원과 산

짐승이 많아 자연적인 천혜의 환경에 삶에 영위하는데 최대 적지가 되지 않았는가? 또한 삼계(三界)에 흐르고 있는 천변(川邊)에는 고인돌(支石墓)이 58기가 현재 보존하고 있으며, 선돌(立石)도 3기가 남아있다.

고인돌은 북방식이 1기가 있으며, 나머지 57기는 남방식이 있어, 현재 원형보존이 32기, 훼손된것이 25기가 있다.

여기에서 북방식과 남방식을 구분 설명코저 한다.

고인돌(支石墓)은 신석기시대에서 금석병용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거석(巨石)기념물로서 탱석(撐石), 혹은 돌멘(Dolmen)이라고도 한다. 축조형식(築造形式)에 따라 남방식과 북방식으로 구분한다.



▲ 고인돌

·소재지: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남방(南方)식은 기반식(基盤式)이라고 하는데 석관(石棺)을 혹은 용관을 매장하고 그 위에 5~6개의 괴상석(塊狀石) 혹은 조판석으로 부정형(不定形)의 괴석(塊石)을 괴어 놓은 것이다. 어떤것은

괴어놓은 측석(側石)으로 묘실(墓室)을 만든것도 있다. 결론적으로 남방식의 특징은 어떤것이든 묘실(墓室)이 지하에 묻혀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방식은 탁상식(桌上式)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방형의 판석(板石) 4~5개를 세워 지상에 석실(石室)을 만들고 그위에 장방형의 대형관석을 개석(蓋石)으로 덮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석실이 곧 묘실이 되어 지상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고장에 선돌이 세가운데 있기에 선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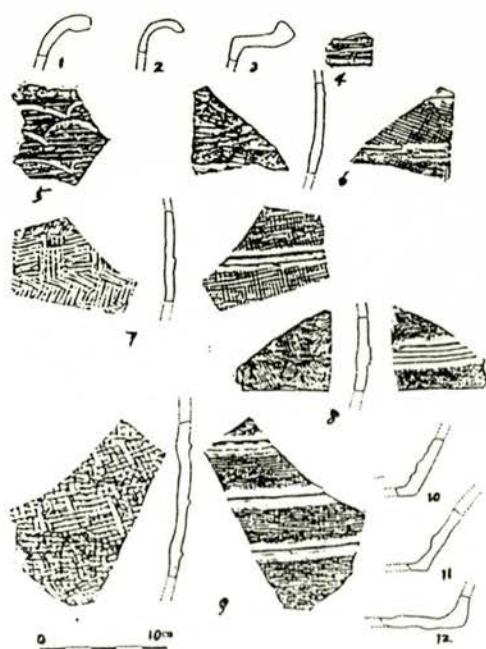
무엇인가 선돌도 역시 거석 기념물이 하나이나 가공하지 않는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영어로는 멘힐(menhir)라고 한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국경, 분묘등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고 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으니 흥미진진한곳이 장곡지역이 아니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국어사전이나 한국어 사전에도 없는 진기한 글자가 있다. 그것은 열방(紇方)이라는 지명이 이곳이다. 그것도 불교사전에서 볼수 있는 글자 "열"은 충청도 조어(造語)로 표기 되어 있으며, 그 뜻은 귀인이 모여 살던 곳으로 해석을 했다. 열방(紇方)지역에는 다양한 모습 형태가 널려 있고 실제 볼수 있고 만져 볼수 있는 물건들이 두루 산재되고 있다.

토성(土城)이 광성리, 신동리, 오성리, 신동 도산리에 네곳에 있으며, 석성(石城)도 사로성(泗虜), 학성(鶴城), 천태(天台), 소군(蘇群)성 네곳이 있고, 그것도 금마 뒷산에 있는 임존(任存)성과 불과 12km거리를 두고 잘 보존되고 있다.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북쪽으로 흐르는 무한대천(無限大川)을 이루어 도도히 흐르는 힘준계곡 앞을 흘러내려 무한대의 가능성을 상징하듯 서해로

흐르고 있다.



▲ 성지출토 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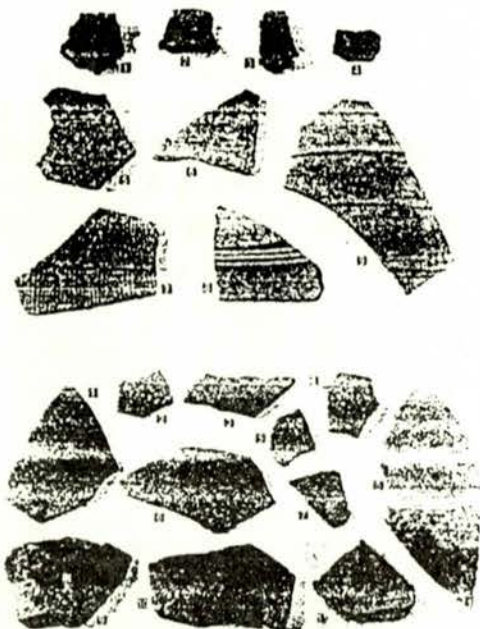
백제가 부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백제가 망해버리고, 백제유민들이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부흥군 활약지가 전기 4개 석성이 주류성이라고 지방사학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 학계원로들이 실측하고 답사하고 학술발표등 그야말로 94년은 흥성군 유사이래 최대관심사로 일년내내 흥분의 도가니에 접어들어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역사적인 정리를 못한 주류성이 이고장이 뚜렷이 부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증하기 위한듯 지금도 성곽에는 군사도로로 쓰였다는 흔적이 있어, 하천에서 산성까지 9~10m 폭의 군사도로가 있으며, 풍왕이 거쳐했다는 왕궁지도 남아 있다. 여기에 성문터가 동서남북 성문지도 있어 문초석(門礎石)이 3개가 발견되었다.

그때의 생활상에 뒤받침이 될 도요지 야철지 기와를 만들었던 와조(瓦造)요지, 무기를 만들었다. 야철(冶鐵)지 등



이 주류성 주변에 야철지 7, 도요지 3, 와요지 2, 활석 석회석, 철광석, 석기를 만들 양질의 석판지등 천연적인 요새와 이에 뒤받침하는 전시상황에서 필요한 지하자원은 곳곳에 있다.



▲ 성지출토 토기편

지금도 야철지에는 “쇠똥”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통칭하고 있지만 호미로 뒤적거리도 지상에 널려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쓰였던 솟도 남아있다.

참으로 회안한것은 각계 각층의 대학교 대사학가 박물관장들이 2~4일을 이곳에 5~6인씩 짝지어 현지 답사하고 와편, 토기편 지표조사를 하고 안내를 받을때는 별의별 말만하고 돌아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행동인 것 같다. 4년전 충남성……이라는 교수가 4명을 거느리고 5일간 답사를 했다. 분명히 주류성은 주류성인데 그 이전에 이병도 박사의 주장대로 한산 건지산성이 주류성으로 인정한 이상 학자의 양심과 체통때문에 인정도 불인정도 안하는 꼴을 보고 참으로 한심한 것은 우

리나라의 사학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주관없는 편견에 싸인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홍성군 장곡지방은 백제부흥군의 풍왕(豊王)이 계시면서 복신 도침 두장군에 부흥운동의 성스러운 곳이 멀지 않아 굳게 확증될것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지방인들이 하나 하나 밝혀내기에 열을 올려 횡형식(橫穴式) 석곽(石槨)묘, 석관(石棺)묘가 부지기수(不知其數)요 이를 뒤받침하기에 충분한 유물들이 있다.



▲ 지 석 묘

·소재지: 홍성군 장곡면 행정 2리

또한 남한일대 희기한 적석총 3기가 남아 있다. 적석총(積石塚)이란 돌로 분형(墳形)을 이룬 묘를 적석총이라고 한다. 적석총의 유래는 흙으로 봉토(封土)를 이루는데 대하여 돌로서 봉토(封土)를 형성하였으므로 이와같이 부르는데 사람의 머리만한 크기의 괴석(塊石)으로 무질서하게 쌓아서 봉토를 형성한것과 그보다 큰돌을 네모로 깎아서 정연하게 쌓아올린것의 두종이 있다. 그중 이 고장에 적석총은 전기한것으로서 둘레가 25m가 되는 큰 적석총이다. 아쉬운것은 지금도 도굴군이 군침을 흘리고 있어 하루 빨리 발굴하여 역사적인 고증이 시급하다. 이 고장 사람들은 왕능 혹은 장군묘라고 전하고 있다.

나는 가끔 상념에 젖어 있을때 몇점안 되는 돌토끼 기와(길이 55cm), 위둘레 45m, 아래둘레 38cm, 글씨 6자 괴면으로 되는 기와에 싸여진 그림) 청자, 백자와편, 침향목 돌도끼 곱돌로 된 접시 돌 접시, 야철지에서 나온 철편(쇠뿔) 숫 화살촉, 석검등 10여가지 고대의 유물을 보면서 무지한 나의 수중에 와있는지 안타깝기 한이 없다. 생의 환열을 가끔 느끼면서 알아보고 싶은 의욕에 알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 모르는것이 많으니 답답하여 허공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젖어 보기도 한다.

그뿐이라. 통일신라 말기 해동성인으로 칭송하는 최치원(崔致遠)선생의 족적(足跡)이 월계리 용연마을에는 마애금석문이 13가운데 있다. 대표적인 글씨는 예교(禮敎)를 들 수 있고 옆에 최고운서(崔孤雲書)로 입증하고 있다. 예교는 교육과 정신문화의 한국민족의 근본지주적인 지표로 나온 생각하고 싶다. 종서로 쓰여진 금석문은 초서로 종서로 각자 되어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일대 대결작이요, 참으로 오묘하고 동양최대의 미술품이요, 대 명필의 유작을 남겨놓으셨다.

이곳은 깊은 골짜기에 수려하고 신선들이 놀다가던 경관이요, 또한 용못의 기막힌 전설도 있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최치원선생의 덕을 기리는 제사도 올리고 있다.

쌍계의 앞산에는 산자수려한 장관의 산으로 이루어 그곳에 절골이었고, 뒤에는 석성이 있어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절이름이 극락사(極樂寺)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궁벽한 지형에 서쪽 시내와 동쪽시내 즉, 쌍계(雙磎)가 합쳐 용못을 이루고 있다. 역시 현지는 용못다운 모습은 없고 용이 하늘로 오르느라고 지형이 바뀌고, 변해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고 하는 곳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이 시퍼렇게 고여 있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이곳 쌍계 서쪽의 시내를 경계로 하여 서쪽에는 안채, 서당을 그리고 쌍계중앙에 사랑채를 지어 놓고서 배를 타고 내왕하였다고 한다.

배를 타는 거리가 10여m 정도로서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매우 풍류스러운 발상으로 생각되며 그 서쪽내의 언덕에 집중적으로 된 여러 마애문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쌍계(雙磎)”라는 글은 세로로 쓰

#### ▼ 쌍 계

여졌으며, 오른쪽에 최고운(崔孤雲)서(자경 12cm)라고 각자되었다. 쌍계(雙磎)는 해서로 글자크기가 3자 3치 정도인 대글자이다. 거



의 모두가 마모되었지만 글이 힘있고 필체가 웅장하다. 이 각자가 있는 곳이 쌍계계곡중 중앙이다. 바로 이 지점 앞 언덕에 배줄을 매든 배바위가 있어 배로 안채와 사랑채를 오고갔다.

최고운이 남긴 마애금석문은 전국에 20여개곳에 남긴 마애금석문은 그중 13개가 마애금석문이 이곳 “쌍계”에 집중되어 있다. 신바람의 골수인 예교(禮敎)를 주장하였다. 현묘한 신의 길을 찾는 풍류 앵랑에서 비서(碑序)에다 두었고, 현문의 길을 두는 실체의 힘을 “예교”에다 두었다.

“한국정신문”의 맥이 되는 예교의 간판글씨 마애금석문이 장곡면 월계리 용연동에 천여년이 지나면서도 보존 관리

하지 않았어도 그 빛은 이제 서서히 관심과 보존의 길이 터질것을 소망에 소망으로 나는 바랄뿐이다.



▲ 용음별서(龍隱別墅)

이곳에는 음인(蔭人)이 거주하기에는 안성마춤인곳으로 고운선생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안채와 사랑채를 다녔다고 한다. 최고운이 이곳에 살면서 강학(講學)을 했고, 지금도 경주 최씨가 몇집 살면서 후손들이 그맥을 이어가고 있다.

고운(孤雲) 해운(海雲) 해부(海夫)라고 칭하지만 평생 외로운 구름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면의 심정에는 자기 고향과 현실과 배경없는 고립무원의 입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진을 양성하고 인격완성의 도(道)를 닦으면서 고종명(考終命) 한곳도 쌍계앞산에 석성아래 절골이 있어 지금도 절터가 남아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말인 즉 극락사(極樂寺)였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고운은 입적(入寂)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재미있는 곳이 있다. 쌍계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을 따라가면 천변에 고인들이 늘비하여 앞산에 소군니성이 있다. 초롱산을 바라보며 힘차게 두날줄기가 있어 이곳이 능안(陵內)이다. 옛날 나당 연합군이 백제부흥군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군사가 이곳에 10일간 정박한 곳이

라고도 한다.

그래그런지 진주소씨 시조 소계령(蘇繼筭)묘가 수기가 있고, 밑에는 민씨묘이고, 또한 그 밑에는 홍주이씨 묘가 양쪽 날줄기에 잘 모여져 있다.

여기 능안에 전설이 있기에 기술할까 한다.

옛날 마한시대인지 진번국시절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장곡 지역을 사록국 진번국으로 인정하는 학자도 있음) 지금의 행정, 월계리 산 허리에 자리한 석굴(石堀)에 장수 한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기운이 장사였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웃나라에서 나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꼬아서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 왔었다. 지금의 소군이성 남쪽에 사로국(泗盧國)이란 나라가 있어서 처음엔 그쪽으로 찾았다. 사로국의 왕은 인자한 사람이었으나 너무나 나라가 적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소군이산에 나라를 세워서 강한 마한(馬韓)의 한나라를 세울려고 거느린 군사를 풀어 산성을 쌓게하고 농사일을 시켰다. 그는 잠깐사이에 몰려오는 백성들때문에 큰나라가 세월질만큼 농경지도 마련하였고, 또한 열심히 일을 했다. 하루는 2개 아래 마을로 보살필겸 들로 나갔다가 우연히도 둥병에서 낚시질하고 있는 노인과 한 아낙네와 마주치게 되었다.

낚시질을 하는 노인과 아낙네가 수상 짝어서 가까이 가서는 어디사는 누구냐고 물었다. 하나 노인은 대답이 없었고 몇번 다그쳐 묻자 아낙네가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외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곤 얼굴을 돌리는데 노인이 낚시대를 번쩍들자 큰 잉어가 걸려서 그 장수 얼굴에 팽개치는 것이었다.

장수는 화가나서 칼을 뽑을까 하였는데 그 노인이 너무나 늙음해서 그러지를 못하고 서 있었다.

「천하에 미친놈이나 나라를 만들지! 이 땅에 나라가 몇개야 아직 불어오는 바람소리도 못가누는 놈이지……」

가자 이만하면 허기를 면하겠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서 그 아낙네와 총총이 걸어가선 큰 느티나무 아래로 가더니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것이었다.

장수는 심상치 않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가까이 가서 공손히 예를 올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웃한 사람들이 신통한 나라가 못돼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였다. 허나 노인은 대답도 없이 고기를 굽다가 산과 하늘을 바라보더니

「산세가 틀렸어. 하필이면 이곳에 잡을게 뭐람! 항시 난리를 피할곳이구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아낙네와 고기를 먹더니

「너는 여기서 살아라! 나는 그럭저럭 가다가 죽을테니……」

하고선 아낙네를 느티나무 아래에 떼놓고 총총이 살아지는 것이었다. 노인이 떠나자 아낙네는 산으로 오르는 것이었다. 그때 장수는 생각하기를

「옳지. 저 여자가 천생연분으로 마누라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 아낙네 뒤를 따라갔다가 산성 가까이에 서 밤중에 그 여자를 범해버렸다. 아낙네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잡혀와서는 그 장수를 한참 쳐다보며 웅시할뿐이었다. 장수는 아낙네를 범한 다음날 많은 군사가 쳐들어 왔다. 장수는 군사들과 힘을 합하여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드디어는 몸에 수십개의 화살촉을 맞고 쓰러졌고, 아낙네도 장수가 죽자 칼을 휘둘렀으나 끝내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다가 한번 다스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온 천지를 뒤집어 놓을 듯 요란하게 쏟아지더니 무서운 천둥과

함께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꼭대기에 큰 바위를 엮어 놓았다.

그 바위는 봉어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후부터 나라가 큰난리가 일어날것 같으면 바위가 바람에 울다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 앉았다.

이러한 전설은 백제부흥군의 요새지요, 주류성 일대에 얽힌 상여바위 복신 굴등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성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많다.

끝으로 쌍계 최치원 선생의 유적에 대한 끝맺음으로 할까 한다.

최(崔)씨는 우리겨레의 술한 성씨가운데에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씨의 하나로서, 신라 이래 많은 재상 문인을 배출한 전통있는 명벌(名閥)이다. 흔히 향간에는 최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나지 않는다. 또는 고집이 센 사람을 「최고집」이라는 표현을 대수롭지 않게 쓴다.

그것은 오랜 역사의 흐름과 체험속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느끼고 본 최씨들의 특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최씨의 본관은 약 3백여본이 알려져 있으나 거의가 지명뿐이고 그 가운데 시조가 분명한것은 40본미만이고 최초의 시조는 신라건국의 모체인 사로(斯盧徐羅伐) 6촌가운데 하나인 돌산고촌허의 촌장 소벌도리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조는 신라말의 대 문장이었던 최치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최씨가 최치원 선생을 1세로 하는 경주 최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개성 삭령, 동주, 전주, 함양, 청주, 영흥, 충주, 용강, 수원, 화순, 통천, 양천, 부안, 강릉, 강화, 해주, 진주등 최치원 선생의 후손에서 비롯된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라옵건대 최씨문중에서 한번쯤 장곡면 월계리 용못에 최치원선생의 마애금석문을 보시고 영구히 보존할수 있도록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감히 지면으로 결례합니다. (한국성씨보감참고)

## 동학(東學)과 농민항쟁(農民抗爭)

주 목 로

개혁자(改革者) 말틴 루터가(1517) 윗텐베르그성 교회문에 95개조의 논제를 내걸고 토론하고자 했던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대주제 아래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던 로마법왕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고 신앙의 자유와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외칠때 드디어 유럽이 진동하면서, 그때 농민들은 신앙상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구별할 여유가 없었으니 당시의 교회는 제후나 귀족과 같이 무자비한 수렴(收斂)과 압제(壓制), 부유층의 사치등 격렬한 말로 책망할 그때 당시 가장 밀창에서 뿔 없는 황소와도 같이 사역(使役)과 착취를 당하던 농민들이 맨먼저 일어난 것이 농민전쟁이었다. 농민들은 신앙의 자유에 앞서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사회적 평등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당시 황제의 명령 없이는 “공중의 새도 날지 못했다.” 할만큼 농민은 각종 중세(重稅), 부역(賦役)을 당할 뿐 아니라 토지 생산의 농을 영주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3할 5부의 고리채를 쓰다보니 조상전래의 전답은 물론 터전까지 빼앗기고 나니 자유마저 잃은 농노(農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럴때 루터가 나타나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독

일은 물론 유럽을 진동(震動)시켰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480년전(1517)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뒤늦기는 했지만 꼭 100년전(1894) 동학(東學)이 주도한 농민항쟁(農民抗爭)이 일어났다.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정치가 부패하자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행패, 과중한 세금부담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특히, 외세의 발호(跋扈)등으로 국기(國基)가 위태롭게 되는 한편 농촌의 계층 변동에 따라 농민의 사회적 의식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등 복잡한 정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민들은 막연하게나마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풍조가 싹트게 되었다. 이때 신흥종교인 동학은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급속도의 발전, 단순한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을 넘어 농민들의 사상을 뒤받침하고 사회개혁과 외국세력의 배척을 포함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삼남(三南)지방에 급격히 전파되었다.

봉건제도의 수탈(收奪)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섰던 동학 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再照明)하면서 폐정개혁(弊政改革)의 내용과 농민통치(農民統治)의 기관인 집강소(執綱所)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이로써 농민통치와 개혁하고자 하는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

리라.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 동학사상(東學思想) 동학교의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과 전승 가사(歌詞)인 용담유사(龍潭遺詞)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말하는 수 밖에 없으나, 이들 자료는 모두 제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그때까지 구전(口傳)되어 온 것을 구송(口誦)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대서(代書) 복사케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 한다.

철종(哲宗) 말년(1863)과 고종(高宗) 1년(1864) 당시의 기록에도 동학의 논학(論學) 1권과 포덕문(布德文), 수덕문(修德文) 등이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동경대전”의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고 전한다.

교조 최제우가 고종(高宗) 1년(1864)에 처형되고 그가 저술한 책자가 모두 불태워져서 그 뒤로는 일문일자(一文一字)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종 말년과 고종 1년 당시의 기록에도 동학의 논학 1책과 포덕문(布德文), 수덕문(修德文) 등이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동경대전”의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고 한다.

동학은 유교적인 도덕, 윤리의 성립에 대해서는 찬탄하면서도 그 반면에는 현실적인 퇴폐상을 탄식한 끝에, 그러한 유교로서는 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사회와 국가를 구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권학가(勸學歌)에도 “경천순리(敬天順理)의 원칙을 믿으라.” 하였고, 지성으로 천도(天道), 천덕(天德)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堯舜)이 다스

린다해도 부족하고, 공맹(孔孟)의 덕으로 해도 부족하다.”고 몽중노소문답가에 말하기도 했다.

신관(神觀)은 한울님으로 세속적이 아닌 도덕관과 주술(呪術)과의 타협 또는 결합을 의미한다.

즉, 한울님을 모시고 사는 시천교(侍天教)란 이름 그대로이다.

동학은 한편 현실부정적인 예언의 종교로서 또한 개혁을 추구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외세의 위협에 저항(抵抗)하며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추구하는 종교로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강령주문과 본주문으로 정해져 있다. 즉, 강령주문은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이니 즉 지극한 기(氣)에 접하게 해 줄 것을 기원하는 일과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 즉 한울님을 모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자의 덕을 몸에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가진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소리를 내어 구송(口誦)해야만 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특히 동학은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양반지배체제가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위기와 파탄(破綻)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종래의 사상이나 종교적 신앙을 통일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종교사상에 따른 구질서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양반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항변이었으며, 외세의 위협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현이 내포(內包)되어 있었다.

동학은 유교적 전통인 성인군자의 관념에서 벗어나 민중각자에 대하여 초세

속적인 윤리, 이를테면 초인적 윤리를 요구하는 듯하다. 이것은 기왕의 모든 종교, 신앙사상을 탈피하여 본원적인 인간윤리의 회복을 선언한다. 동시에 동학의 지도층은 이같은 영웅윤리만으로서 민중을 이끌어 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민중은 어디까지나 정감록(鄭鑑錄)같은 참위설(讖緯說) 즉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나 무격(巫覡) 등의 주술(呪術)신앙에 머물려고 한다.

동학이 정감록(鄭鑑錄)에서 궁을(弓乙)을 한울님의 표상으로부터 부적화(符籙化)하고 신선은 불로장생한다는 선약(仙藥)등 도가적(道家的) 요소를 섭취함으로써 그 예언의 종교는 주술과 타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중의 주술적인 귀신신앙을 고차원적(高次元的)으로 한울님을 모시는 일신교적(一神教的)인 종교로 끌어올려진 것이었다.

더욱 이들은 잔반(殘班)신분에 의하여 창도(唱導)하였으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신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추종되고 대부분이 농민인 민중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동학은 단적(端的)으로 말하여 잔반신분(殘班身分)과 농민이란 평민층의 종교였다.

동학의 용담가(龍潭歌)에서도 “가련하다. 가련하다. 우리 부조(父祖) 가련하다. 구미용담(龜尾龍潭) 좋은 승지(勝地) 문장도덕 닦아내어 산음수진(山蔭水鎭) 알지마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못하시고 구미산하(龜尾山下) 일정각(一亭閣)에 용담(龍潭)이라 이름하고 산림처사(山林處士) 일포의(一布衣)로 후세에 전탄말가!

자기의 가문이 가련하다고 탄식한 바 있고, 서열차별(庶孽差別)이 심한 사회

의 부조리, 유교윤리의 형식적인 퇴폐상을 절실히 느끼면서 새로이 유포되는 서학 즉, 천주교신앙이 엇갈리는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절감한 듯하다.

당시 사회추세의 이면을 살펴보면

- 첫째: 동학교도중에는 “정감록”과 같은 비기(秘記)를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 둘째: 찰방(察訪), 감찰(監察), 현감(縣監), 영장(營將), 진사(進士), 승려(僧侶), 보부상(保負商), 반수(班首)까지 결합되어 있었다.
- 셋째: 이 집단은 정변(政變)이나 화적(火賊)과도 배후에서 연결되어 있고, 특히 도회지(都會地)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 넷째: 이 집단은 전라도에 근거하여 서울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화적(火賊)을 지원했다고 한다. 더욱 정감록 신자의 집단이라 할 수도 있다.

끝으로 동학의 폐정개혁과 집강소(執綱所)의 임무를 살펴보는 것으로 매듭을 짓코자 한다.

전 봉준은 전라도 53주(읍)의 관청 안에 각기 집강소를 두게하여 동학교도가 각읍의 집강(執綱)이 되어 지방의 행정관청이나 다름없이 직무분장을 나누어 집강 한 사람을 두고 그 밑에 서기, 성찰(省察), 집사(執事), 동몽(童蒙)등 임원을 두었다.

군수나 현령, 현감은 이름뿐이오 이서(吏胥)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을 해야 이름을 보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주에는 대도소(大都所)를

두고, 전봉준은 수천의 동학교도를 거느리고 김구(金溝) 원평(院坪) 등지를 근거로 하여 전라우도에 호령하였다. 당시 집강소에는 폐정의 개혁을 위한 행정의 요강을 공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12개 조항으로 간추려져 있다.

- 1) 도인(道人)과 정부와의 사이에 오래 끌어 온 혐오의 감정을 씻어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
-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 내어 일일이 엄징(嚴懲)할 것.
- 3) 횡포한 부호(富豪)들은 엄징할 것.
- 4) 부랑(浮浪)한 유림과 양반은 징습(懲習)할 것.
- 5)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 6) 칠반천인(七般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입(平壤笠)은 벗겨 버릴 것.
- 7) 청춘과부의 재가(再嫁)를 허락할 것.
- 8) 무명(無名) 잡세(雜稅)는 모두 거둬들이지 말 것.
- 9) 관리의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10) 외적(外賊)과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 11) 공사채(公私債)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돌릴 것.
- 12) 토지는 균등(均等)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 것.

이를 위하여 이제 동학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그들과 지방관리와 사이의 오랜 원한을 풀고, 난국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서로 협력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를 쇄신하고 외국인과 호응하는 자를 없이 하여 외세의 침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질화된 탐관오리, 양반, 토호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그들에 의한 남징(濫懲), 토색과 고리대금 행위의 절멸을 꾀하고 경작지를 농민에게 균분(均分)해 주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과 노비제의 폐지, 천반 천인에 대한 대우 개선등을 기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즉 봉건적인 가렴주구(苛斂誅求)와 신분적 차별을 없이 하자는 것이며, 외세를 배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적인 전통 사회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양반층으로부터의 비난도 없지 않았다. 동학에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느니 적서노주(嫡庶奴主)의 구별조차 없으며 내외존비(內外尊卑)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봉건적인 신분관에서 오는 비난이었다. 또한 동학군은 국가의 역적이요, 유도의 난적(亂賊)이요, 부자의 강적이요, 양반의 구적(仇敵)이요, 동학군의 눈아래는 정부도 없다는 등 유교적인 양반지배 체제의 국가관, 사회관에서 오는 심한 비난이기도 했다. 동학이 내세웠다는 12개 조항의 요강이 집강소가 설치된 직후에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으나, 그것이 일시적인 실시로 연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성의 질서, 그 신분사회, 부패관료에 대한 민중의 반발은 동학군의 저항의식으로 귀일집약되어 간 셈이었다.

이제 집강소(執綱所)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동학혁명중에서 집강소(執綱所)는 농민통치와 개혁의 성격을 실현하는 기존의



지방관청의 소임을 대행하는 관서였다.

집강소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동학농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단행한 농민의 권력기관이었고, 동시에 통치기관이었으며, 농민혁명의 지방권력의 한 형태였다. 집강소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농민들의 행정만이 아니라 농민에 의한 통치기구였다. 이외에도 각종 중세적, 봉건적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개혁을 실현하는 관청이 아닌 민청(民廳)이었다.

집강소의 개혁은 농민들이 추구한 근대적 개혁의 첫 모형이라고 볼수도 있고, 뜻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형태였다.

중세적 구 체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을 위한 민주주의적 농민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기관이었다.

만일 외세의 간섭이 없어서 동학농민군이 패전하지 않고, 서울에 입성했다면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전국에 걸쳐 집강소형의 “근대적 개혁”의 모형이 더욱 발전하면서 실시되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갑오농민개혁의 농민통치가 중세적 구 체제를 폐지하고 농민형의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동학이 농민혁명운동의 결실임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기도하다.

집강소는 비록 일부지방에서의 사례일지라도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통치권력을 장악하고 수천년 묵어온 중세적 구 체제를 폐지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을 추구한 농민혁명의 통치기관이었다는 특색은 높이 평가될 일이다.

이 집강소에 의한 농민통치의 개혁은

한국역사에서 전근대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변혁하는 길을 넓게 열어준 역사적으로 뜻깊은 의의를 가진 사건이면서 벌써 백년전에 순수한 농민들의 동학개혁의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긍지와 실체를 보여준 역사적 하나의 결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 동학농민운동과 홍주전투

李 道 行

## I. 머리말

갑오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한 오지영의 저서 동학사에는 농민군의 2차봉기 후 전라도 농민군(남접군)이 공주로 진격할 때 金福用, 李熙人 등은 4천군을 거느리고 목천 細城山 방면을 지키었고, 박덕칠, 박인호 등은 7천군을 거느리고 홍주, 예산 방면을 지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덕칠(회인), 박인호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활약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사는 홍성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활약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몇가지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민군측의 1차 자료로서 이 지역의 농민군을 지휘한 박인호(후에 천도교 4대교주, 춘암상사)의 회고담인 “갑오동학기병실담”, 동학접주 조석현의 “북접일기”(창산후인 조석현역사록), 홍종식의 “동학란실화”, 문장준의 “문장준역사” 등과

둘째, 일본측 자료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의 전황 보고가 실려 있습니다.

셋째, 호연초토사 겸 홍주목사 이승우 막하에서 농민군 토벌에 관여한 홍건의 “홍양기사”와 기타 여러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I.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와 충남 서북부 지역

주지하는바 전라도에서 1894년 1월 10일에 조병갑의 학정으로 야기된 고부민란이 일어났고, 이어 3월 31일에는 전봉준이 백산에서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여 이어 4월 7일(양 5.11) 황토현에서 전주감영군을 격파하고 27일에는 전주에 입성했다.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이 아산에 상륙하고(5.5), 불청객인 일본군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하여 인천에 상륙(5.6)할 무렵 농민군은 초토사 홍계훈과 전주화약을 맺고(5.7) 새로 임명된 전라감사 김학진의 협조속에 전라도 53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에 착수, 농민통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무렵 우리 충남(충청도) 지역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공주 이남의 전라도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남접에 호응 꺾기한 것으로 추측되는 봉기가 있었는데 청산, 옥천 등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회덕현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진잠으로 향하다가 전주화약의 소식으로 스스로 해산하였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 홍주목 관할 지역은 어떠했는가?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관아를 습격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동학세력의 성장과 그들에 대한 탄압에서 발생하는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1) 갑오년 2월경 덕산에서 사는 전병사 이정규가 힘없는 백성에게서 쌀, 돈, 소, 말, 전답, 가산, 선박등을 빼앗아서 수천명의 원망에 사무친 백성들이 이정규의 집등 12호를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이정규를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시켰다.

2) 갑오년 4월 7일에는 동학도 수백명이 원평(현, 서산 운산면 원벌리) 현재 개심사 주변에 모였는데, 모인 목적은 동학도를 탄압하는 보현동 이진사를 응징하고자 함이었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1887년 6월 충남면천에 유배되어 1894년 갑오개혁시 김홍집내각의 외부대신으로 입각하기까지 7년간 귀양살이한 김윤식의 면양행견일기와 동학접주 홍종식이 같이 전해주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동학세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3) 7월 7일 홍주에 동학주문을 외는 소리가 밤마다 점치(漸熾)하고 있으며 사교(史校)와 노령(奴令)들까지 추여되지 않은 자가 없다. 또 홍주 부근에도 “난도(亂徒)”가 사방에서 일어나 재물과 마필등을 간탈하기도 하면서 이노범주 이리핍관 이천능귀(以奴犯主 以吏逼官 以賤凌貴)한다. 9일에도 시가를 횡행하며 행패를 부리고 공사(公私)의 말과 노새를 빼앗아 갔다. (홍양기사, 7월 9일)

4) 조금은 늦은 시기지만 갑오년 8월 5일에는 결성 양곡에 사는 한석각 생원이 부여 임천으로 피 신했는데 그 이유가 도인, 즉 동학도의 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5) 8월 6일에는 선무사 정경원(鄭敬源)이 홍주로 와서 홍주 인근의 접주들을 소집하여 효유하였다. 이 무렵 유명한 거피로는 홍주의 김영필(金永弼), 정대철(丁大哲), 이한규(李漢奎), 정원갑(鄭元甲), 라성뢰(羅成雷), 덕산의 이춘

실(李春實), 예산의 박덕칠(朴德七), 박도일(朴道一), 대홍의 유치교(兪致教), 보령의 이원백(李源百), 남포의 추용성(秋鏞成), 정산의 김기창(金基昌), 면천의 이창구(李昌求)등이 있었다. 이 중 이창구가 거느린 무리가 가장 많아 5,6만명을 칭하였고, 덕산의 한명보(韓明甫), 한응고(韓應古) 형제는 가장 완강하여 몇 차례의 효유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홍양기사, 8월 6일)

이상에서 알수 있듯이 전라도에서 농민군의 1차봉기와 집강소가 설치되었을 시기에 충남 서북부 지역 상황은 동학농민군 봉기의 제 여건이 성숙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Ⅲ.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주지하는바 일본군은 갑오년 6월 21일 경복궁에 침입하여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 개혁사업을 펴는 한편 6월 23일 아산만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선공으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성환과 평양의 육전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육, 해군을 진격시켜 여순과 위해위의 청군을 물리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다.

한편 대원군과의 밀약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무렵 전봉준은 일본군을 물리치고자 재기병을 준비했다. 이 2차 봉기 시에는 오지영 등의 노력으로 남접, 북접의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접 연합군의 공주진격이 있게 되었다.

한편 충남지역 농민전쟁의 주요 전장은 농민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우금치를 중심으로한 공주 일대였지만, 홍주목관할 내포 지역에서는 덕의대접주 박인

호와 예포대접주 박희인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의 활약이 있었다. 내포지역 농민군 활동의 본격적인 전개는 갑오년 9월 18일(양 10.16)에 있었던 자위적 측면의 최시형의 무력 봉기 선언에서 비롯된다.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끈 박인호 대장은 봉기의 원인을 극도에 달한 정치 부패와 관리들의 동학도 탄압이었다고 두 가지를 들고 있다.

2차 봉기 시기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군 최초 봉기는 10월 1일(10.29)의 서산과 태안에서의 봉기다. 동학 덕포 접주였던 홍종식은 자신의 입도한 갑오년 2월 이래 서산 일군이 동학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서산 지역에 동학세가 상당히 컸다. 당시 태안부사 신백희는 동학 두령 30명을 체포 처단하려 했는데, 10월 1일의 태안, 서산봉기로 동학 두령 30여명은 구출되었고, 태안부사 신백희, 종친부에서 파견된 김경제, 서산군수 박정기, 이방 송봉훈등이 처형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후 10여일간 예포대도소에서는 각 군아의 무기를 탈취하고 식량을 준비하는 등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박인호의 명령으로 신창에서 홍주 보령 남포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의 다음과 같은 활약 예견대

10월 5일 동학군이 아산현에 침입 무기를 탈취했다는 점.

10월 6일 결성현감 박기봉이 농민군들에게 군기와 병부를 탈취당한 사실.

10월 7일밤에 보령의 수영에 농민군 수백명이 돌입, 군기를 탈취하여 배에 싣고 광천 쪽으로 갔는데, 10월 7일 호연초토사로 임명된 홍주목사 이승우는 홍주성을 방어하기 위해 유희군을 편성하는 한편 10월 8일의 광천에서 보령 오천 수영에서 무기를 탈취한 동학 농민군과 첫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농민군으로부터 무기를 노획하여 홍주성의 방에

확충했다는 점에서 각 군아의 무기를 탈취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홍주 목사 이승우가 목소(현, 예산군 삼교읍 성리)에 있는 예포대도소를 공격하였다. (목시전투)

이날은 공교롭게도 북접군의 청산대회가 있었고,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박인호, 박희인 등은 청산대회에 참석하였다고 보여진다. 목시전투에 대해 조석현은 이승우 초토사가 일병 3백명과 관병 수백명 그리고 유희군 수천명을 이끌고 와서 2~3시간 절전 끝에 동학도는 무사했으나, 이승우관군은 2명 사망, 3명 중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목시전투 후 10여일간은 농민군이 와해되는 지경에 처했다.

10월 22일에 예포대접주 박희인이 태안에 도착하면서 농민군은 재봉기했다.

23일에는 해미에 진을 쳤고, 24일에는 농민군이 여미평(현,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에 집결했다. 농민군 총대장인 춘암상사 박인호의 회고에 의하면 노인파 어린애들 말고 총가진 사냥군 숫자만 6천명이었다고 한다.

농민군은 경성을 목표로 진군했는데 이는 전봉준의 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려 목표로 하고 북상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경성을 목표로 한 코스는 해미-면천-예산-서울로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월 24일 농민군은 면천사기소리 승전목에서 농민군 진압차 용산에서 남하 중인 적송국방 인솔의 일본군 제2중대 지대 약 70여명의 일본군과 교전했다. 일본군은 2~3만정도나 되는 농민군의 세에 압도되어 면천으로 후퇴하였다가 10월 25일에는 홍주성으로 들어갔다. 이 승전목 전투에 대해 조석현은 일병 400명, 관군 5백명, 유희군 수천명이 농민군을 공격해왔으나 오히려 일본군과 관군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군기,

군복을 다수 빼앗긴 것으로 일기에 쓰고 있으나 약간 과장된 기록으로 보인다.

승전목에서 일군을 격퇴한 농민군은 면천 관아를 점령하고 하루 유진한 후 구만리에서 이승우 관군과 교전했다. (이에 대해 홍건의 홍양기사와 광천 부상감의비에는 10월 20일 합덕(합포) 전투가 있었다고 쓰고 있다.) 농민군은 10월 25일 예포대도소와 박인호 생가가 인접한 구만리에서 유진하였다.

10월 26일에는 예산 신례원 후평(관작리)에 유진 중 호연초토사 이승우가 보낸 중군 김덕경(병돈)이 이끄는 4~5천명과 격전했다. 격전지는 신례원과 무한산성이라고도 하는 예산산성이었다.

조석현은 신례원과 예산산성 전투에서 이승우 관군은 중군 김병돈 이하 장졸 6,7인과 병졸 7~8백명이 몰사했다고 한다. 고북면 가구리 소재 초토사 이공비와 광천의 부상감의비에 의하면 신례원전투에서 중군 김병돈, 영관 이종옥(창옥), 주홍섭, 주영섭, 16세 소년 한기경등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기경의 장렬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의 현판은 얼마전까지 정려가 해체된 후 한환규씨가 소장하고 있었다. 예산에서의 전투에 대해 박인호는 이승우 관군을 포위 공격하여 패배시키는데 “홍의동자”의 활약이 컸다고 한다.

신례원과 예산 전투 후 농민군은 경성으로의 진격 목표를 수정하여 홍주성 공격을 위해 기수를 돌렸다. 그 이유는 경성으로 진격시 야기될 후환(後患)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10월 27일 농민군이 홍주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 중 덕산 역말에 이르렀을때 이승우 관군은 대포를 은폐하고 우물에 독약을 풀고, 마름쇠를 감추어 놓고 농민군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덕산에서 유진하며 밤에 주문을 외고 있었는데 이 곳

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무죄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것이라고 생각한 술장사하는 노파 한사람이 대포 구멍에 물을 넣었다. 이승우 관군은 동학의 조화로 대포구멍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혼비백산 후퇴하였다.

10월 28일(양력 11월 25일) 박인호 지휘의 농민군은 덕산역말을 지나 홍주로 진격했는데, 이때 관군과 일본군은 지금은 홍성고 동편 매봉재(웅봉)에서 농민군을 관측하고 성 안으로 후퇴하였다. 농민군은 홍주성 공격에 앞서 지금의 홍성여중과 홍주향교 그리고 매봉재 주변에 주둔했다. 홍주 향교 앞에 세워진 “칠의비”는 홍주향교를 지키다 10월 28일밤 농민군에 의해 희생된 7명의 향교 서재생을 기리고 있는데, 이러한 양반의 희생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갈산 안동 김씨의 종이 그 주인의 고환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동학농민군이 양반에 대해 가진 감정이 좋지 않았던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농민군은 10월 28일 오후 4시 25분 빙고언덕(氷庫峙)를 공격하여 그곳의 일본군을 홍주성안으로 패퇴시킴으로써 홍주성 공격을 시작했다. 동학의 조화를 맹신하여 성급한 공격을 감행한 농민군은 북문과 동문을 공격하였고, 날이 어두어지자 추수한 논에서 벼짚을 날라 성 밑에 쌓아 놓고 월성(越城)하고자 했다. 그러나 화공으로 맞선 이승우 관군에 의해 대 참패를 당했다.

홍주 전투 결과에 대해 아까마스(赤松)소위는 농민군 전사자 200명, 사상자 미상으로 전하고 있으나 홍건의 “홍양기사”는 농민군이 이보다 훨씬 많이 전사했음을 전하고 있다.

‘10월 28,29일 사이에 걸쳐 홍주성에서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 간에 전투가

벌어져서 관군이 크게 승리하여 농민군 6,7백명이 사망하였다.’ (홍건 “홍양기사” 10월 28일,29일)

홍주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은 박인호, 박희인, 조석현, 문장준, 홍종식등의 지도자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덕산과 해미방면으로 도주하여 해미성으로 집결했다. 이 무렵 11월 6일에는 죽산부사 장위영 영관 이두황이 관군 1천 8백을 이끌고 덕산에 도착하였고, 이어 11월 7일에는 해미성에 주둔한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 유희군 연합부대간에 전투가 벌어져 농민군은 박치용, 진삼달 등 29명이 포로로 잡혔고, 불랑기, 대포, 자포총 등 많은 무기를 빼앗겼다.

구산성과 저성으로 옮겨가며 항전한 농민군은 서산 매현과 도비산으로 퇴각하여 항전하다 관군에 진압됨으로써 홍주목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 IV. 홍주전투의 의의와 향후의 연구과제

홍주전투는 갑오년 동학농민군 2차 봉기시에 전개된 3대전투 중의 하나라 하겠다.

홍주전투에 일주일 앞서 전개된 천안 세성산전투에서 김복용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이두황의 관군에 의해 패배하였고, 앞서 살펴본 홍주전투 열흘 후에는 공주 우금치에서 전봉준, 손병희 지

휘의 남, 북접 연합 농민군이 관군, 일본군에 패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내걸고 일본군을 구축하려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홍주목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을 더 자세히 고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전쟁의 조직을 제공한 동학의 포교와 교세 성장에 대한 연구와 박인호, 박희인, 이창구 등 당시 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우리 고장 홍성, 내포지역의 과거사를 밝히고 조명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참고 문헌 ●

- 배향섭,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동학교단” 「백제문화」 제23집, 199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1-6, 국사편찬위원회, 1986~91
- 조석현, 「북접일기」, 「한국사상」13, 1975.2
- 문장준, 「문장준역사」, 천도교신인간사, 「신인간」, 1979년 11월
- 차상찬, 「동관잡화」, 천도교신인간사, 「신인간」, 1926년 4월.
- 홍종식, 「동학란실화」, 천도교신인간사, 「신인간」 1929년 4월호
- 박인호, 「동학기병실담」, 조선중앙일보사, 「중앙」 16, 1935년 2월.

(7) 일지총(一枝塚)

- 梅竹堂 先生忠文公三問墓碑銘竝序
- 梅竹軒 成先生三問 連山遺墟碑文

(8) 死六臣公園

- 死六臣義舉의 歷史的 考察
- 死六臣公園의 沿革
- 神道碑 및 解說
  - 有明朝鮮國 六臣墓碑銘竝序
- 六角碑文
- 死六臣 노래
- 國史編纂委員會 決議事項
- 國史編纂委員會 合議事項

7. 맺는말

▼ 일지총(一枝塚)



● 문화재지정: 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81호

(7) 일지총(一枝塚)

● 위치: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양촌리 산58번지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81호 (84.5.17지정)

● 규모: 분묘 1기(둘레 30m, 직경 13m)

일지(一枝)총이란 사지(四肢) 즉 팔과 다리를 뜻하는 말로써 팔과 다리를 문었다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나, 팔이 문혀 있는지 다리가 문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1456년 세조는 대로하여 단종복위에 동참했던 육신을 참형하고, 그래도 분이 안풀려 죽은 시신을 전국에 조리돌리게 하였다.

“저, 역적놈들을 방방곡곡에 조리돌리도록 하라!”

세조의 호통소리에 한명회는 덩달아 “저 역적놈들을 팔도에 조리돌리라.

어명이시다. 빨리 시행토록 하라.”

「역적 성삼문(逆賊成三問)」이란 기를 앞세우고, 한양을 출발하여 충청도에 도착했다. 참형 당시 사지를 끈으로 묶고, 사방에서 말로 끌었으니 선생의 시신은 네개가 된 셈이다. 어떠한 경위로 노랑진 성삼문(成三問)묘소에 어느 부분이 모셔졌는지 알 수 없으나 그중에서 일지(一枝)만이 선생을 대리하여 조리돌리게 되었던것으로 추측된다.

기를 들은 군졸은 그래도 덜 어려웠지만 일지(一枝)를 지게에 모시던 군졸은 여름철인지라 온 몸에 땀이 흠뻑 젖었다. 그때가 구리개고개(현재 논산군 가야곡면 양촌리 고개로 후에 성삼문고개라 함)를 넘고 있을 때였다.

“에이! 역적놈 사지라서인지 왜 이렇게도 무겁단 말인가? 땀도 많이 나는데 무겁기도 하다. 제기랄!”

하고 독설을 퍼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무데나 물어라” 라는 소리가 은은하게 몇번 들린다. 이 사지를 모시던 군졸들은 괴상히 여겨 상의하기에 이른다.

“아무데나 물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저놈이 낳을때도 「낳느냐」는 소리 세번 듣고 낳았는데 지금 또 「아무데나 물어라」하네.”

그대로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후환이 있더라도 여기에 묻자고 서로 상의하여 묻은곳이 현재의 일지총(一枝塚)이다.

얼마후 김한(金閑)이란 사람이 구리개고개 넘어 있는 쌍계사(雙溪寺)에서 자게 되었다. 잠을 자다 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장부가 나타나더니

“내가 있는곳이 어찌 더러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것이였다.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였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괴상한 일인지라 아침 일찌기 주지스님에게 꿈이야기를 전했다. 승려도 한참 생각하더니 이 근처에 성삼문(成三問)의 일지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김한(金閑)은 곧바로 일지총을 찾아

가보니 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므로 김한(金閑)은 자기가 입었던 적삼을 벗어 백골을 싸서 묻고 봉분을 한것이 최초의 성분(成墳)이다. 그후 1615(光海君 7)년 은진현감(恩津縣監) 정효성이 봉분을 중수하고 장송기(長松記)를 지었으며, 1735(英祖 11)년에 이도선(李道善) 현감이 봉분(封墳)을 수축하였으며, 1958(英祖 34)년에는 조재순(趙載淳)이 제문(祭文)을 처음 지어 제사지내기 시작했고 조돈(趙墩)은 수호인 열 집(十戶)을 두어 묘소를 지키게 했다.

1764(英祖 40)년 한남군(漢南君: 세조의 아들)의 후손 이광국(李光國)이 묘정에 비(碑)를 세웠으며, 1825(純祖 25)년에 묘전비(墓前碑)가 건립되었다.

• 梅竹堂先生忠文公三問墓碑銘 竝序

昔我先祖尤庵文正公嘗撰梅竹堂成先生遺墟碑文有曰漢江南邊有四塚各有小石只書姓氏世傳是六先生而無基二基謂成氏即先生也又恩津地有一墓而長松生其傍居民指謂先生一枝徇示至縣庭因瘞于此而纔令流水云

옛날 우리선조 우암 문정공께서 일찌기 매죽당성선생 유허비문을 지으셨는데 여기에 「한강 남쪽에 네 무덤이 있는바 각기 조그마한 표석이 있는데 다만 성씨를 기록했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바로 육선생의 무덤이라 하는데 네개만 있을 뿐이어서 두개가 없다.

표석에 성씨(成氏)라고 쓴 것은 바로 선생이시다. 또 은진에 한 묘가 있는데 장송(長松)이 그 옆에 자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을 가리켜 선생의 일지(一枝)가 순시(徇示)하여 현의 뜰에 이르자 인도하여 이곳에 묻고 겨우 물이 흐르게 했다.」라고 하였다.

嗚呼今此立碑者即所謂恩津之一墓而九老峴西坐原也先生實無衣履所藏而累經滄桑之餘尙得墳上不改且既子孫殄滅而每歲



霜露之辰猶能香火不絕至於行人過客亦皆指點咨嗟而必式樵兒牧子無敢嘯歌躑躅於其上是孰使之然哉可見其天理民彝極天罔墜而忠義所感自不得不然嗟呼懿哉

아! 슬프도다. 지금 비석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은진의 일지총이란 것으로서 구로현 유좌이다. 선생은 실로 장례한 곳이 없는데 여러번 큰 변란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분토(墳土)가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또 자손이 이미 끊겼는데도 매년 상로가 내릴 때이면 아직까지 향화가 끊임없이 받든다. 그리하여 길가는 과객들 까지도 모두들 이곳을 가르키면서 슬퍼하고 반듯이 머리를 숙이며, 초동(樵童) 목자(牧子)들도 감히 이 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배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천리와 민이가 하늘이다 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여 충의의 감동하는 바에 자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으니 아! 훌륭하다.

先生諱三問字謹甫昌寧人永樂戊戌生于洪州魯恩洞正統乙卯生員戊午及第歷事世宗 文宗 端宗官至承旨當世祖丙子離丹書與考總管公勝同朴公彭年李公塏柳公誠源河公緯地俞公應孚皆死世稱六臣者也

선생의 휘는 삼문이요, 자는 근포요 창령사람이다. 영락 무술년(太宗 18: 1418) 홍주의 노은동에서 출생하였다. 정충 을묘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무오년에 급제하여 세종, 문종, 단종을 섬겨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세조 병자년 죄적(罪籍)에 올라 부친이신 총관공 승과 박팽년,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등 제공과 함께 모두 죽으니 세상에서 일컬어 육신이라 한다.

仁宗朝廷臣有以六臣事陳達自是連有請褒其節 肅廟朝 命復官爵建院宣額於露湖又有祠屋之設隣近 莊陵洪州之魯恩洞連山之漢陽村皆以遺址而立祠樹碑公私崇報之道前後无遺憾焉

인종때에 경연의 신하가 육신의 일로써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로 연달아 충절을 포창할 것을 요청하였다. 숙종때에 명하여 관작을 회복하고, 노량진에 서원을 세운 다음 사액을 내렸으며, 또 장릉 가까운 곳에 사당을 세우고 홍주의 노은동과 연산의 한양론은 모두 유지라 해서 사당을 세우고 비석을 세웠으니 공으로나 사사로나 중앙하여 보답하는 도가 전후에 유감이 없다.

先生之從叔仁齊公燻連累受嚴鞠安置金海及其蒙宥屏居公州今其後裔之在達田者惟茲墳塋極其守護而每嘆其力有不逮事有未遑近者京鄉諸人發議立墓碑苦其主張擘畫者實醉琴朴先生後孫大司鍊基正也成生錫龍灑澆涉道仁諸君亦盡心斯沒而以諸士友之意屬余爲銘竊念非身無柩非柩無墓古之制也然先生之無柩而有墓亦異乎虛葬之非正墓之有碑誠宜矣先生微蹟已詳于吾祖所記兩墟碑今可據此而述之也已

선생의 종숙이신 인재공 희는 여러번 엄한 국문을 받고 김해에 안치했었는데 사면을 받고 공주로 병거하였다.

이제 인재의 후손으로 달전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 분묘를 극진히 잘 수호하였으나 매양 힘이 미치지 못하여 일을 할 겨를이 없음을 탄식했었다. 그런데 근자에 경향의 여러사람들이 발의하여 묘비를 세우니 이 일을 주장하여 계획한 자는 실로 취금헌(朴彭年의 號) 박선생의 후손인 대사간 기정(基正)이며, 성생석, 성룡호, 성완섭, 성도인 제군들도 이 일에 정성을 다하고 여러 사우(士友)의 뜻으로서 나에게 묘비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생각컨대 시신이 없으면 관이 없고, 관이 없으면 묘가 없는 것이 옛 제도이다. 그러나 선생은 관이 없으면서도 묘가 있으니 정도가 아닌 허장과는 다르므로 묘비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선생의 훌륭한 사적은 이미 우리 선조께서 기록하신 두 유허비에 자세히 밝

혀져 있으니 이제 이것을 의거하여 기술할 뿐이다.

噫我世祖當時所論後世之忠臣者蓋將明天理以樹民彝於無窮矣而數百年來朝家之褒崇士林之欽奉久而不已亦所以對揚聖祖明訓也豈不盛矣哉抑余讀先生兩詩而又有所欽感慨竊謂其曰愧君猶食首陽薇顯陵松栢夢依依者百世之下尙有以知先生之始終也銘曰

猗六臣節實萬世忠 聖祖明訓垂耀無窮斯  
可以銘于先生墓有屹貞珉彝永樹

恩津 宋煥箕 謹撰

아! 세조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후세의 충신이라고 한것은 장차 전화를 밝혀서 민이를 무궁하게 심으려고 한 말씀이었는데 수백년내로 조정의 포승과 사자(士子)의 흠양함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니 또한 성조의 훌륭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어찌 기록하지 않은가!

또, 나는 선생의 두 시를 읽으면서 다시 흠모하고 감개되는 바 있다. 내가 생각컨데 선생의 시에 「그대가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먹은 것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꾸짖은 것과 「현릉의 송백이 꿈에도 아련하네」라고 하였으니 백세가 지난후에도 이것으로서 선생의 시종을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거룩한 육신의 절의 실로 만세의 충신 이네. 성조의 훌륭한 교훈 무궁토록 빛나라. 이것으로써 우리 선생의 묘에 명하노니 우뚝한 비석에 민의가 영원히 보전 되리рода.

은진 송환기는 삼가 찬합니다.

#### ● 梅竹軒 成先生三問 連山遺墟碑文

先生諱三問字謹甫昌寧人皇明永樂戊戌生于洪州魯恩洞外家將降自空中有問曰生乎如是者三故以爲名

선생의 휘는 삼문이고, 자는 근보로 창녕사람이다. 영낙 무술년 홍주의 노은동

외가에서 출생하셨는데 출생할때에 공중으로 부터 “났었느냐”고 묻는 소리가 세 번 들렸기 때문에 삼문(三問)으로 이름 지었다한다.

正統乙卯生員戊午及第丁卯重試壯元歷事我世宗文宗魯山三朝世宗眷遇絕異文宗與之爲布衣交官至承旨景泰六年乙亥世祖受禪魯山遜于別宮先生與父摠管公勝及朴公彭年李公塏柳公誠源河公緯地俞公應孚六先生者死之

정통 을묘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무오년에 급제하고 정묘년에 증시에 서 장원하였다. 우리나라 세종, 문종, 노산의 세 임금을 차례로 섬겼는데 세종께서는 특별히 총애하였으며, 문종께서는 선생과 포의교(布衣交:가난했을때의 친분, 이욕(利慾)등을 따지지 않은 교제)를 맺었고,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는데 경태(景泰: 명나라 왕이름) 6년 을해에 세조가 선위를 받고 노산군이 별궁으로 피하자 선생은 부친이신 총관공 승과 박팽년,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등 육선생 등과 함께 죽었다.

既而世祖曰彭年三問等當世之亂臣後世之忠臣聖訓蓋將明天理以樹民彝於無窮也漢江南邊有四塚各有小石只書姓氏世傳是六先生而無其二謂成氏即先生也

그후 세조는 말하기를 「팽년, 삼문 등은 당세의 난신이고 후대의 충신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장차 천리를 밝혀서 사람이 이성을 무궁토록 심으려고 한 것이었다.

한강의 남쪽가에 네개의 무덤이 있는데 다만 성씨만을 기록했을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육선생의 무덤이라 하는데 두개가 없다. 여기에 성씨라고 한 것은 곧 성선생이시다.

又恩津地有一墓而長松生其傍居民指謂先生一肢徇示至縣庭因瘞于此而纔令流水

云仁宗朝筵臣有六臣事陳達自是連有請褒其節者宣祖朝朴先生閔腹之裔遂蒙錄用之命孝宗朝左贊宋公浚吉右議政李公厚源有祠享之請今上壬子京中士人南宅夏等因人得先生神主於仁旺山崩崖間謂是先生夫人所自題而奉祀者

또 은진에 한 묘가 있는데 장송(長松)이 그 옆에 자라고 있다. 주민들은 이 묘를 가리켜 「선생의 일지(一枝)가 순시하여 현의 뜰에 이르자 인도하여 이곳에 묻고 겨우 물이 흐르게 했다」고 한다.

인종때에 경연의 신하가 사육신의 일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육신의 충절을 표상할 것을 청하는 자가 연달아 있었다. 선조때에 박선생의 유복손을 마침내 녹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효종때에 좌참찬 송공 준길과 우의정 이공 후원이 사당에 제향하자는 청원이 있었다.

금상 임자년(현종 13년:1672)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 남택하(南宅夏) 등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선생의 신주를 인왕산 무너진 벼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선생의 부인이 스스로 제주하여 봉사한 것이라 한다.

先生舊宅在洪州者歲久圯腐閔公維重爲監司修葺於崇禎戊申至是遂以奉安於其中而洪之章甫顧於觀察使南公二星洪州牧李公暹沔川守閔侯甸前掌令趙公世煥相與立祠於其洞且樹碑以傳其事公私崇報之義次第無憾矣

선생의 구택이 홍주에 있었는데 오래되어 허물어지고 나무가 썩었다. 민공 유충은 감사가 된 다음, 승정 무신년에 개축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마침내 신주를 구택에 봉안하였으며, 홍주 사람들은 관찰사 남이성, 홍주목사 이섬, 면천군수 민갈, 전장영, 조세환 등 제공에 호소하여 서로 협력하여 노은동에 사당을 세우고 또 비를 세워 그 사적을 전했으니 국가와 사림의 숭보한 의가 차례차례 거

행되어 유감이 없다.

維此連山之漢陽村者先生別業之遺址也其東數里許有古塚自昔縣人相指以爲先生祖先所藏而土地臧獲皆沒于勳府爲一時狐鼠輩所利而其臧獲等不忘舊恩每歲秋成享先生以俚俗焉

이 연산의 한양촌은 선생의 별장(別莊)이 있던 이지이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몇리쯤 떨어진 곳에 고총이 있는데 옛부터 고을 사람들은 이 고총을 가르켜 선생의 선조가 묻힌 곳이라 하며 토지와 노복이 모두 충훈부에 적몰되어 일시의 쥐새끼 같은 놈들이 차지하였는데 그 노복들은 옛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추수가 끝나면 선생을 민속적인 의식으로 제향했다.

蓋本縣自沙溪老先生三世以來鄉里蔚然鄒魯之俗矣慕先生風義益深遂建石于其地益懼愈久而湮沒無微也嗚呼成仁取義孔孟大訓也沙溪老先生所以爲教者在是焉

이 연산현은 사계 노선생이 3대째 거주하신 이후로 향리에 계속하여 공자와 맹자의 예속이 이어져 왔다. 그리하여 선생의 풍도와 절의를 사모하여 마침내 이곳에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세월이 더욱 오래되면 인물되어 증거할 것이 없어 질까 두려워해서 였다.

아! 슬프도다.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하라는 것은 공맹의 훌륭한 교훈이시니 사계 노선생께서 가르치신 것은 여기에 있었다.

今連山之爲是役蓋亦有所受而亦所以對揚聖祖明訓也李議政宋參贊皆老先生門人而董石事者洪友周金光老金萬峻也若夫先生事實顯末則童土尹公舜舉詳具于魯陵志此不復贅云

恩津宋時烈敬撰

이제 연산에서 이 일을 하는것도 전수한 바가 있으며, 또한 성조의 훌륭한 교

훈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 의정과 송참찬은 모두 노선생의 문인이며, 이제 비석을 세우는 일을 감독할 사람은 홍우주, 김광노, 김만준이다. 선생의 사실에 대한 전말로 말하는 동토 운공 순거가 노릉지에 자세히 기록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은진 송시열은 삼가 찬함.

### (8) 死六臣公園

死六臣公園은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에 있다.



▲ 死六臣公園 案内板

1456(세조 2) 병자년 6월 9일 端宗復位를 圖謀하다 共謀했던 김질은 그의 장인 鄭昌孫을 통하여 세조에게 밀고함으로써 車裂梟首의 참형을 당하신 분들의 墓域이다. 이들을 후세에 死六臣이라 존칭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신을 어느 누군가 이 공원에 埋葬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金時習이 했다는 說이 유력시되고 있다. 당시에는 六臣中 成三問先生(成氏之墓)의 묘가 상좌에 李塏先生(李氏之墓)의 묘가 하측 상좌 중간에 兪應孚先生(兪氏之墓), 하좌에 朴彭年先生(朴氏之墓)을 平土한 대로 安葬되어 있었다.

其後 225년이 되던 1681(肅宗 1)년 9월 12일 江華留守 李選이 死六臣의 묘를 成墳토록 하여 士林들이 尊崇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이 가하다는 상소로 愍節書院을 건립하여 奉祀케 되었다.

이와같이 원래는 四先生의 분묘만 있던것을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1978년 5월 18일 이 지역을 聖域化하면서 三先生(河緯地, 柳誠源, 金文起)을 假墓하여 현재는 다음 도면과 같이 7基의 묘가 있



으며, 位牌도 義節祠에 7位를 모시고 奉祀하고 있다.



▲ 義節祠 (사육신 공원내)

### ● 死六臣義舉의 歷史的考察

朝鮮王朝의 건국은 魯恩洞 출신인 崔瑩將軍의 高麗國 擴張意志에도 불구하고 李成桂의 逆心에서 좌절되어 끝내 高麗國이 滅亡되어 李氏王朝가 建國되었지만 바로 王位 繼承問題를 둘러싸고 骨肉間(형제간)에 참담한 王位爭奪戰이 되풀이되면서 혼란이 거듭되었고, 回甲도 되지 않아 또 왕실에서는 強制禪讓이란 美名을 둔갑시켜 王位를 篡奪한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즉 世宗大王 다음에는 장자 문종(제5대=在位 2년)이 왕위를 이었고, 문종의 뒤를 장자 단종(제6대=재위 3년)이 즉위하였는데, 이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세였다.

그 당시 왕실에는 여러분의 영특한 숙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首陽大君(세종의 2남)은 가장 큰 뜻을 품고 野心과 慾望이 컸고, 精力과 手婉이 대단하여 權謀術數에 능한 사람이었다.

首陽大君은 王位爭奪을 圖謀코져 먼저 秘計를 써서 忠臣 金宗瑞, 皇甫仁을 刺客을 시켜 죽이고, 아우 安平大君(名: 瑑)을 歸鄉 보낸후 죽이고, 곧이어 자신이 領議政(현 首相)이 되어 국내외의 實權과 兵權까지 兼掌하여 실질적으로 國權을 좌우하는 威勢를 떨쳤다.(癸酉政變) 이에 어쩔수 없는 窮極의 境地에 몰린 어린 단종은 在位 3년만에 禪讓이란 형식으로 王位를 首陽大君에게 禪讓당하고 말았다. 이가 곧 7대 世祖이다.

이와같이 세조는 封建臣子로서 더욱이 叔父로서 凶計 또는 奸臣들의 秘計를 써서 단종의 왕위를 탈취하였으므로 白日下에 드러난 그 悖倫의 叛逆行爲는 天下百姓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였다. 이때 形勢로는 당초부터 세조와 함께 秘計로 단종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지지파와 외세의 흐름에 아부하여 權益만 탐내어 출세에 눈이 어둔 汚吏들이 많았다. 이로써 首陽大君을 盲從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반면 首陽의 非人道的인 悖倫을 통

탄하고 義憤을 참지 못한 忠臣들이 있었으니 이 主動者가 우리 고장 魯恩洞에서 태어난 成三問先生이다.

이들은 비밀리에 首陽大君의 일파를 숙청하고 단종의 복위를 도모코져 한 것이다. 즉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源, 金文起 등 集賢殿學者를 중심으로 한 文官中心의 大義名分派이니 이들이 곧 死六臣들이다.

그러나 그의 謀議에 同參했던 김질의 叛逆으로 세조에게 密報되었다. 내역인 즉 명나라 使臣 尹鳳五의 還送宴에서 世祖의 父子를 제거하고 上王인 단종을 復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단종은 降封되어 魯山君으로 寧越로 追放되어 暗殺되고 死六臣과 主謀者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들의 直系尊卑屬들은 三族을 멸하는 벌을 당하였으며, 四寸, 五寸 등은 모두 官職에서 물러나거나 遠地로 放出되었다.

당시 이 광경을 본 士林중에서 世祖의 2남 悖倫行爲에 대하여 분개하여 隱巡한 학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生六臣이라 지칭해오고 있으나 학자들간에 異論이 있다. 生六臣들은 金時習, 南孝溫, 元昊, 李孟專, 趙旅, 成聘狩 등이라는 학설과 혹은 南孝溫, 代身에 權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그 이유로서는 南孝溫은 단종의 臣下라거나 生六臣중의 一名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野說로서 “六臣傳을 저술했으나 내용이 정확치 못하고 金時習과 交遊하였다는 說도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南孝溫의 출생이 단종 2년이고, 세조의 즉위는 그 다음해였으므로 南孝溫이 어떻게 生六臣의 의거에 가담할 수 있었겠느냐는 설이다.

南孝溫은 成三問 등 儒臣 5인에다 將臣 俞應孚를 첨가하여 六臣傳을 著述하였기때문에 이들 6人을 死六臣이라하여 지금까지 義節祠에 奉祀하여 왔으나, 근래 학자들은 世祖實錄(2년 6월 丙午日

條)에 나타난 死六臣「罪狀記事」(義禁府의 判決文)에는 兪應孚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士林出身의 金文起(工曹判書 兼三軍道鎮鎮撫)가 義學의 최중요건인 軍卒動員의 責務를 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南孝溫의 六臣傳중 세조에 불복한 金文起를 兪應孚로 착각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兪應孚(武官), 成勝(武官), 朴情(武官)과 함께 雲劍중의 한사람으로 舉事場에 참가할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朝鮮王朝實錄에 明記된 六臣 罪狀중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는 兪應孚가 文官出身이 아니고 武官이기 때문에 그랬을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韓國史大觀)

#### ● 死六臣工公園의沿革

1456(세조 2)년 6월 2일 朝鮮王朝 세조 2년 儒敎立國의 道學政治를 이념으로 한 集賢殿學士출신 死六臣들이 暴惡無道한 폭군행위에 분개하여 大義名分으로 단종을 복위시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려다가 탄로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고 순절한 사육신을 士林學派後學들이 “百世의 師表”로 追仰決定하다.

1681(숙종 7년) 9월 12일 江華留守 李選의 上疏로 鷺梁津 死六臣墓를 成墳토록 하여 愍節書院을 건립하여 士林에서 尊崇하여 奉享토록 允許하였다.

1691(숙종 17년) 9월 4일 肅宗이 “備忘記”를 내려 成三問先生 등 六臣(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源, 兪應孚)을 復爵하고 愍節書院을 賜額하였다.

1731(英祖 7년) 3월 20일 金文起先生을 復官시키다.

1782(正祖 6년) 神道碑를 세우다.

#### ● 神道碑 및 解說

有明朝鮮國六臣墓碑銘 竝序  
 太宗伯太學士 趙觀彬 撰  
 集唐顏真卿 書



▲ 神道碑閣

維漢師迤南越鷺梁津向午之岸有五塚同域各樹片石只書姓氏如婦人之表而過者皆下馬指點咨嗟曰萬古忠臣之葬卽所謂六臣墓也六臣者參判朴公諱彭年承旨成公諱三問校理李公諱塏司藝柳公諱誠源參判河公諱緯地都摠管兪公諱應孚是已事 世宗 文宗被 恩遇及 端宗遜國諸公抗義以殉事載南秋江孝溫丙子六臣列傳而

유명 조선국 육신묘비명 병서

대종백 태학사 조관빈이 지금 당나라 안진경의 서체를 집차하였음.

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노량진을 건너면 남향 한 언덕에 다섯 무덤이 한 지역에 나란히 있는데 각각 편석을 세우고 다만 성씨를 써서 마치 부인의 묘표와 같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 자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손으로 가르키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만고 충신의 묘이다」 하니 소위 육신묘란 것이다.

육신이란, 참판 박팽년, 승지 성삼문, 교리 이개, 사예 유성원, 참판 하위지, 도총관 유응부이다.

이 분들은 세종과 문종을 섬겨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단종이 손위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여 순절하니 이 사실이 추강 남효온이 지은 병자 육신열전에 기재되어 있다.

朴公臨池之矢成公抱寶之哭李公之感 顯陵松柏柳公之慟集賢絲綸河公貯祿而置室

俞公取鐵而投地此可以槩其實蹟矣

박공은 경희루의 연못에서 단종을 위하여 죽기로 맹세하였고, 성공은 손위할 당시 국새를 안고 통곡하였으며, 이공은 현릉(문종의 능호)의 송백에 감회한 시를 지었고, 유공은 집현전에서 세조의 공을 주공에 비한 초고에 통곡하였으며, 하공은 세조가 주는 녹을 모아 집에 저장하고 먹지 않았으며, 유공은 몸을 지지던 부젓가락이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하고 땅에 던졌으니 이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光廟後世忠臣之褒有足以揭日星而垂宇宙 宣孝兩朝亦有愍忠銀後之典惟我 肅宗大王尤致意於曠感崇報之義已未閱武露梁隔江望墓 命修其隧道因多士疏請傍其墓立祠竝享辛未幸 章陵輦過又 命復官致祭賜祠額曰愍節戊寅修闕章祔 端宗于 太廟又遣官祭六臣祠於是乎端宗至德永配列祖而諸公之危忠大節與有先而遂無憾矣

세조께서 이들은 후세의 충신이라고 표창하신 말씀이 태양과 혜성처럼 빛나 우주에 드리워졌으며, 선조와 효종 양조에서도 또한 충신을 가없이 여겨 후손을 녹용하는 은전을 내리셨다.

우리 숙종대왕께서는 더욱 광감하고 숭보하는 의에 뜻을 두시어 기미년 노량진에서 무예를 열시 하실제 강너머로 묘를 바라보시고는 묘도를 잘 보수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여러 선비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묘 옆에 사우를 세워 아울러 제향하게 하였다.

신미년 장릉(원종의 능호)에 행차 하시느라고 노량진을 지나다가 다시 명하여 관직을 추복하고 제사를 올렸으며 「민절사」라 사액하였다.

무인년에 그동안 꺾었던 예전을 깨끗이 닦아내고 단종을 태묘에 배향하였으며 또 제관을 보내어 육신의 사우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에 단종의 높은 덕을 찬양하여 열조에 배향되고 제공의 충

절이 큰 절개가 함께 빛나 마침내 유감이 없게되었다.

噫惟茲五墓既表以朴俞李成姓氏則其爲六臣中四公無疑又有一成氏此則成公之父勝同時被禍葬此云而河公墓在嶺南善山只藏一體柳公墓則獨不聞所在蓋當日禍作家族盡夷無人收骸有僧負其屍瘞之或云梅月堂金公時習而維時猝急事多未遑堂斧相錯黠難辨則河柳之葬亦安知不混於此中耶

아! 슬프다. 이 다섯묘에 이미 박씨, 유씨, 이씨, 성씨라고 성씨만 표시하였으니 육신의 내분이 되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성씨가 있는데 이는 성공의 아버지이신 승으로 같이 화를 입어 여기에 안장한 것이다.

하공의 묘는 영남의 선산에 모셨는데 다만 한 지체만 묻혔고, 유공의 묘는 유독 어느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시에 화가 일어나자 가족이 다 멀하여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는데 어떤 중이 그 시신을 저다 묻었다 한다.

어느 사람은 이가 바로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라 하는데 당시에 갑작스럽고 급하여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많아 무덤이 서로 뒤섞여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하씨와 유씨의 시신도 이속에 섞여 있지 않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嗚呼臣爲君死大義也然其於國命無革天運有歸則爲齊桓之管仲唐宗之魏徵者從古幾人而諸公則當其時也不忍負 先王託幼之意能辨一死如 皇明方孝孺諸人其所樹立可謂卓絕及有戊寅邦禮益可見諸公之死終焉爲感發 天意之一大助矣 磣血之藏荒圯幾年而隨時隱顯并與國是而定堂不悲且奇哉

슬프도다.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죽는 것은 대의이다. 그러나 국명이 바뀌지 않고 천운이 돌아감이 있는 즉 제환공의 관중과 당태종의 위장 같은자가 옛부터 여러 명인데도 제공들은 이 때를 당해서

차마 선와(世宗)께서 어린 왕세손을 부탁하신 뜻을 저버리지 못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 마치 명나라의 방효유(方孝孺) 등 여러 사람과 같으니 계공들의 수립한 공이 크게 뛰어났다고 할만 하였다. 무인년 국례(단종의 복위를 말함)가 있고보니 계공의 죽음이 끝내 천의를 감발한 하나의 큰 도움이 되었음을 더욱 볼 수 있다.

충신의 한이 서린 닢이 문헌 무덤이 여러해 동안 황폐해 있다가 때를 따라 드러나 국시와 함께 아울러 정해졌으니 어찌 슬프고 괴이하지 않겠는가!

六臣之後惟朴公遺腹孫倖而得免過數世始被錄用七世孫翊贊崇古增築是墓辨其疑信今上丁卯因筵臣陳白命京畿觀察使治碑立墓道愍節祠有司章甫閔百興沈錫等託余以記載之文如諸先生義烈有辭於天下後世碑有無何足輕重而聖主表忠多士勤請屢辭而不能得則遂以託名碑未爲榮謹序其事而系之銘

육신의 후손은 오직 박공의 유복손만이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는데 몇대를 지나 비로서 등용(錄用)되었다. 7세손인 익찬 승고가 이 묘를 종축하고 의심스러운 것과 믿을만한 것을 변별하였다.

금상 정묘년에 경연관의 진백으로 인하여 경기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비를 만들어 묘소에 세우게 하였는데 민절사의 유사인 장보(선비) 민백홍, 심우 등이 나에게 기록할 글을 부탁하였다. 여러 선생의 의열을 천하후세에 크게 전승되어오니 비가 있고 없는것이 어찌 영향이 될 수 있겠는가 마는 임금께서 충신을 표창하시고 여러선비들이 부지런히 청하므로 여러번 사양하여도 할 수 없이 마침내 비의 끝에 이름을 넣는 것을 영광으로 삼아 삼가 사실을 서술하고 명문을 붙이는 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한다.

銘曰人記有五臣節無二 聖朝培植以遺後嗣有若六臣爲 端宗死何用諱例直筆在史

露湖之岸累累其瘞碑不書名傳疑幾世故老曰信此足可政埜域久秘衣履終保河則別阡柳無早土事在倉卒莫詳厥故無亦二公混闕此隧四時無薦義士技淚惟我肅考忠節是獎瞻墓而感建祠以享皎日洞照褒草始曄追崇魯陵神人允協於王之德遐不廟配君臣一體忠哉公輩昔者忌諱今則顯誦前所荒廢後乃虔奉并薦芬苾醉琴之齋 王命穹碑舊典是繼道臣治石士林董役秋傳尤記正論不易大書貞珉臨江屹立江水滔滔遠通越峽

인륜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하의 절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성조(世宗)께서 인륜을 배양하여 후사에 물려 주시니 저 육신들이 있어 단종을 위하여 죽었네. 어찌 숨길 것이 있겠는가!

직필로 써서 사책에 실려 있네. 노랑진 언덕에 무덤이 여기 저기 이어져 있는데 비에는 이름을 쓰지 않아 몇대를 전설로 전해왔네.

묘역은 오랫동안 숨겨졌으나 유해만은 끝내 보전되었네. 하공은 묘가 따로 있고, 유공(성원)은 한줌의 흙도 없으니 일이 창졸하여 그 연고를 자세히 알 수 없네. 이 두 분도 이 묘에 섞여 있는것이 아닐까? 사시에 천향함이 없으니 의사들은 눈물을 흘렸네. 우리 숙종대왕께서 충절을 표창하셨네. 묘를 돌아보고 감회하여 사우를 세워 제향하였네.

밝은 해가 환히 비치니 포창하는 글이 비로써 빛났네. 노릉(단종의 묘)을 추송하니 귀신과 사람이 진실로 흡족하네.

아! 왕의 덕이여. 어찌 종묘에 배향되지 않겠는가! 임금과 신하가 일체하니 충성스런 공들이여! 전에는 기회하여 말하지 않더니 지금은 현양하여 영송하며 전에는 황폐하였는데 뒤에는 정성껏 제사를 받드네. 아울러 제물을 올리는 사람은 취금헌(박팽년의 호)의 후손이네.

임금께서 큰 비를 세우라 명하시니 옛은전을 다시 이었네. 도백이 돌을 다듬고, 사람들이 일을 감독하였네. 추강의



육신전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정론은 바뀌지 않네. 큰 글씨로 쓴 비석이 강가에 우뚝 세워져 있으니 강물도 도도히 흘러 멀리 월협(越峽: 영월 단종의 묘)을 통하네.

嗚呼六臣墓碑撰成在於 英考丁卯而越十有一年戊寅則 莊陵復位之周甲也 上命贈朴公成公李公柳公河公職吏曹判書俞公職兵曹判書諡朴公曰忠正成公曰忠文李公曰忠簡柳公曰忠景河公曰忠烈俞公曰忠穆乙未 上聞朴公後裔來居京師 命旌其閭 當宇丁酉 命嶺南道臣旌表河公閭蓋 肅廟朝以公從子追定其嗣家在安東至是有是命戊戌追禮官致祭于愍節祠 列聖朝表忠獎義干斯至矣

슬프도다. 육신의 묘비를 찬성한 것은 영조 정묘년이었는데 그후 11년인 무인년은 단종을 복위한지 주갑(60년)이 되는 해였다. 임금께서 명하여 박공, 성공, 이공, 유공, 하공에게 이조판서를 유공에게 병조판서를 증직하였으며, 박공은 충정, 성공은 충문, 이공은 충간, 유공은 충경, 하공은 충영, 유공은 충목이라 시호하였다.

을미년에 임금께서는 박공의 후예가 경사(서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명령하여 그 마을에 정려문을 세웠으며, 당저(當宇: 그때의 임금) 정유년에 영남의 도백을 명하여 하공의 마을에 정려문을 세우니 이는 숙종조에 공의 종자로서 그 후사를 추정한 바 집이 안동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다. 무술년에 예관을 보내어 민절사에 치제하였으니 열성조의 충의를 표창한 것이 이에 지극하다 하겠다.

諸公之大名高節昭揭萬世顯何待乎螭頭龜趺之有無耶然惟我 聖考特命顯刻之盛意迄未奉揚爲士林恨愍節有司李東直與其僚任經記鏡石朴公嗣孫前縣監基正勤誠相之工乃告訖吁亦可貴也余嘗過露梁墓木苑

然非復前日之荒壟今豐碑且屹人孰不知爲忠臣之葬而益加欽歎者誠田 三朝崇報之盛德而然此宜有太史氏之大書也今因章甫之託略敘丁卯後恩典立碑顛末如右云爾

原任右議政完山李徽之謹識

崇禎三壬寅 月 日 立

제공의 훌륭한 이름과 드높은 절의가 만세에 빛나니 어찌 머리에 용을 새기고, 좌대에 거북을 새긴것(신도비)의 유무에 필요로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임금께서 특별히 현각하라 명령하신 거룩한 뜻이 아직 받들어 현양하지 못하여 사림의 한이 되었었다. 민절사의 유사 이동직이 동료직원과 함께 경영하여 돌을 다듬고 박공의 사손인 전현감 기정이 정성껏 도왔다. 그리하여 공사가 끝났으니 아! 이 또한 귀한 일이다.

내가 일찍이 노량진을 지나보니 묘에 나무가 무성하여 옛날에 황폐했던 무덤이 아니었는데 이제 큰 비가 다시 우뚝 세워졌으니 누구인들 충신의 묘인줄 알지 못하겠는가. 더욱더 흠탄(欽歎:아름다운 점을 몹시 칭찬하는 용어)할만한 것은 진실로 삼조(肅宗, 英祖, 正祖)의 숭보하신 성덕때문이니 이는 마땅히 태사씨(史官)의 대서특필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선비들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략 정묘년 이후의 은전과 비를 세운 전말을 오른쪽과 같이 서술하는 바이다.

원임 우의정 완산 이휘지는 삼가 씀  
승정 3임인 월 일 세우다.

• 1871(고종 8)년 월 愍節書院撤廢(賜額書院中 47個所만 남김)로 儒林에서 奉享하다.

• 1955년 10월 六角碑를 세우다.

※六角碑文(死六臣之墓碑)

• 1957년 추모회를 조직하여 春秋(음 3월3일, 9월9일) 追慕祭를 올린다.

• 1958년 2월 2일 死六臣奉享會 발족하다.

◀ 六角碑 (사육신공원내)



▼ 六角碑文 (死六臣之墓碑)

石室 碑 墓 火 臣 介 凡  
 石室은 반평면은 돌방  
 碑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墓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火 石 室 內 刻 有 碑 文  
 臣 石 室 內 刻 有 碑 文  
 介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凡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石室은 반평면은 돌방  
 碑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墓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火 石 室 內 刻 有 碑 文  
 臣 石 室 內 刻 有 碑 文  
 介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凡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石室은 반평면은 돌방  
 碑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墓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火 石 室 內 刻 有 碑 文  
 臣 石 室 內 刻 有 碑 文  
 介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凡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石室은 반평면은 돌방  
 碑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墓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火 石 室 內 刻 有 碑 文  
 臣 石 室 內 刻 有 碑 文  
 介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凡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石室은 반평면은 돌방  
 碑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墓 石 室 內 刻 有 碑 文  
 火 石 室 內 刻 有 碑 文  
 臣 石 室 內 刻 有 碑 文  
 介 石 室 內 刻 有 碑 文  
 凡 石 室 內 刻 有 碑 文

- 1961년 5월 25일 死六臣顯彰會로 개칭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얻어 문교로부터 승인을 얻어 법인등기하다.
- 1967년 李學魯가 死六臣歌 제정하다.

사육신의 노래 ▶

李學魯 詞 洪州文化 曲

1 부귀와 영 화 불 불 리 치 고 고  
 2 만국 의 경 기 흥 높 이 세 주 고 고  
 3 인민 의 강 살 음 바 모 세 우

오 모 지 온 근 위 해 불 불치 신 신  
 오 모 지 거 대 위 해 한 급 지오 신 신  
 오 모 지 강 작 성 인 인 인 지 지

사 육 신 신 생 님 의 貞 忠 節 義 은 은  
 사 육 신 신 생 님 의 貞 節 剛 義 은 은  
 사 육 신 신 생 님 의 불 변 의 의 은 은

영 원 히 살 아 계 신 사 육 신  
 영 원 히 살 아 계 신 사 육 신  
 영 원 히 살 아 계 신 사 육 신

- 1969년 祭享을 년 1회로 하기로 결정하고 祭日을 10월 9일 한글날로 정하다.
- 1972년 5월 25일 死六臣墓를 지방 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다.
- 1977년 5월 1일 死六臣墓所를 聖域化하여 國民忠孝修練場으로 하다.
- 1977년 9월 22일 國史編纂委員會에서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蓋, 柳誠源, 金文起 순으로 元死六臣을 還元判定하다.



▲ 死六臣公園內  
成三問先生墓

#### ※ 國史編纂委員會決議事項

(1977.9.22)

本委員會는 朝鮮王朝時代의 基本史料인 朝鮮王朝實錄에 의하여 學術的 研究와 委員會의 討論을 걸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린다.

1. 世祖二年 六月六日 甲辰條에 「八道 觀察使 節制使 處置使에게 내린 宣論文에 李塏,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柳誠源, 朴仲林, 權自愼, 金文起, 成勝, 俞應孚, 朴靖, 宋石同, 崔得池, 崔致池, 尹令孫, 朴耆年, 朴大年 등이 陰謀하였다」라고 十七人이 記錄되어 있음.

2. 世祖二年 六月 八日 丙午條에 丙子 靖難關聯者를 軍器監 앞길에서 凌遲 處死 梟首三日케한 事實과 主謀者의 活動相에 관한 記錄을 檢討하건데 그들중 특히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

源, 金文起 순으로 六臣만을 들고 있으며, 金文起가 都鎮撫로서 朴彭年과 謀議할때 運動員의 責任을 맡은 事實이 記錄되어 있음.

이러므로 위에 든 六臣이 世祖朝에 가려진 六臣이라고 判定됨.

3. 肅慕殿 西廡配享位次에 國婚關係者를 除한 丙子靖難官員으로는 金文起의 位次가 首位임.

結論 以上 1, 2, 3항의 史料에 典據하여 判斷하건데 忠毅公 金文起를 顯彰하여야 된다고 判斷함.

添記 朝鮮王朝實錄은 史官이 記錄한 正史이고, 秋江集은 傳聞한 바를 私撰한 것임을 밝힘.

以上과 같이 國史編纂委員會의 歷史的 判斷으로 文教部 文化公報部 指示를 받은 서울특별시는 墓가 없는 金文起先生, 河緯地先生, 柳誠源先生의 假墓를 모셨다. 그리고 기왕에 있던 俞應孚將軍의 墓는 그대로 存置하라고 하였으니 모두 일곱분상이고 位牌도 일곱분이 되었다. 이렇므로 본회에서는 일곱분을 모시고 현창하고 있다.

• 1978년 5월 18일

死六臣 柳誠源, 河緯地, 金文起 세분의 假墓를 모시고 義節祠에 神位를 奉安하여 聖域化된 死六臣公園으로 1978년 5월 19일 開園하다.

• 1981년 10월 9일 死六臣殉節五二五周年 追慕祭享을 올린다.

• 198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定款改定の 承認을 받다.

• 死六臣公園을 聖域化한 大義를 받들어 國民忠孝教育修練場으로 施設을 갖추어 이 나라 民族精氣의 本山을 이룩하여 아울러 死六臣顯彰會 會館을 建立코자 추진하기 시작하다.

• 1982년 10월 9일 死六臣殉節 五二六周年 追慕祭享을 올린다.

• 1982년 11월 11일 國史編纂委員會

에서 合意事項을 發表하다.

※合意事項 (1982. 11. 11)

1. 史料에 典據하여 判斷하건데 忠毅公 金文起를 顯彰하여야 된다고 史斷함.

2. 死六臣墓域에 金文起의 虛葬을 奉安함이 可하다고 思料됨.

3. 兪應孚의 墓는 現狀대로 存置함이 可하다고 思料됨.

4. 端宗 復位運動에 參與하여 희생된 인사들을 忠臣祠 또는 忠臣壇으로 하여 그 位牌를 奉安하는 것도 可하다고 思料됨.

以上과 같은 本 委員會의 回報內容을 檢討한 결과 그 妥當性을 認定하며, 以上條項은 金文起가 顯彰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從來의 死六臣의 構成을 變更한 바 없음을 確認함.

1982년 11월 11일

國史編纂委員會

## 7. 맺는말

여러 資料를 蒐集하여 魯恩洞의 脈을 정리해 보았다. 즉 洞名이 赤洞, 赤谷, 金谷, 金洞, 火洞, 老隱, 綠雲, 魯恩★ 등으로 바뀌어지면서 無窮한 歷史가 흘러왔고, 文化遺蹟도 現存하고 있다.

• 崔瑩將軍, 成三問先生의 生家址

• 成三問先生 遺墟碑

이 碑는 肅宗大王의 장인인 閔維重이 碑돌을 구하여 魯恩洞에 運搬해 놓고

○1668년 尤庵 宋時烈先生이 碑文을 지었으나

○1690년 碑前面에 “昌寧成先生三問之閭”라고만 刻字立石

○1728년에 비로서 尤庵先生이 지은 碑文 刻字完成

○1744년 尹鳳九碑陰記刻字 完成

… 碑建立期間 76년

• 魯瑩祠址

• 嚴讚古屋(成三問先生最初 祭享家屋)

• 成勝, 竹山朴氏墓(成先生父母墓)

• 成三問妻墓 등

이와 같은 遺蹟들은 高麗時代부터 緣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魯恩洞이다. 또한 이러한 점 등이 1993년 忠淸南道에서 1個所만인 文化마을로 國家에서 지정 받았다.

그러나 筆者는 他地域에 于先하여 聖域化하여 옛 忠臣들의 痕迹을 復元하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現 사회의 潮流는 그렇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은 사람들은 豪華住宅, 墳墓, 別莊, 遊興 등에만 취하여 10대의 호기심만 자극하여 情緒生活을 混動시키고 人物이란 位置에 오늘 사람들은 모든 事業의 于先順位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打算하여 社會秩序를 紊亂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聖地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복원되어 선현들의 忠節의 遺魂이 후손들의 가슴에 심어질지 걱정된다.

앞으로 魯恩洞의 脈이 遺産文化를 통하여 나라의 支柱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원되어 국민의 教育현장으로 활용되기 기대하면서 끝을 맺는다.



## 仁靈泉寺

· 所在地: 洪城郡 洪城邑 南長里 44-1

홍성에서 광천행 국도를 따라 1.5km 지점 남장리 도로변에서 200m 서쪽 산기슭에 우뚝서있는 사찰이 국도에서도 보인다.

이 절은 해방후 한옥평옥에 암자로 시작하여 내려오다가 4년전에 현 위치에 대웅전을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지상에 발표되는 것을 꺼려 자세한 내력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위치상으로는 교통 편의면으로는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위치라서 발전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 대웅전: · 전면 3칸  
· 측면 2칸  
· 팔작개와지붕

● 요사채: 12평 한옥

● 주 지: 신 열 균

● 신도수: 120명



## 龍門庵

●소재지: 洪城郡 長谷面 廣城里

광성리 오서국민학교 앞 버스종점에서 2km지점.

이 위치는 내원사 가는 길 따라 오르노라면 버스종점과 내원사(4km지점)와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길옆에 있다. 길은 비포장 농로길이다.

주지 김상환이 6.25후 암자로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이절 역시 교통이 불편하고 이름없는 암자라 그런지 옛모습을 벗지못하는 사찰중의 하나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몰리는 현대인의 사고가 여기에서도 나타남을 알수 있다.

신도들이 시원치 않고 절의 재정이 신통치 않아 발전의 여지는 있지만 요원할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새로 생기는 사찰도 버젓이 운영되는데 옛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웅장한 도장을 보면 달갑지 않은 필자의 생각엔 부합되는 절일

지 모르나 도장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다.

경치좋고 특히 절 앞을 흐르는 개울물이 맑고 시원해 일품이며, 찾길도 포장은 안됐지만 됐고 하니 신도들의 협조 아니면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형식가춘 사찰로 발전하여 역사깊은 내원사와 일환으로 관광의 명소로 부각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광성 옛성터가 있고하니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절은 대웅전이 따로 없고 평옥 다섯간 집에 불당을 모시고 있다.



## 내가 가장 존경하는 네분의 업적

이 건 업



가장 존경하는 청주이씨 李魯胤(이노윤) 門長任께서는 洪城郡 金馬面 竹林里에서 1780年 12月 11日에서 出生하시였고, 現在는 115才입니다.

이노윤 문장님은 학문이 有名하시고, 禮약에도 有名하시여 禮의 法度에 철두철미하게 실행하시고, 性品이 청렴결백하며 奉仕정신이 강하시여 실천행동을 꼭 실현을 하십니다.

청주이씨 종사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물심양면 많이 努力하시여 청주이씨 업적을 지대하게 귀감이 되도록 공적을 빛나게 하시였습니다.

이노윤 門長任께서는 生母는 小年時節에 下世하시여서 계모를 모시고 兩親에게 지극한 孝道를 하시다가 父親께서 病患이 위중하시여 百藥이 無效임으로 下世 運命中에 단지를 하시여서 父親 입에도 단지를 잡수시게 하시여 위중한 병환이 회복하시여 萬壽堂(만수당) 만연하시고 조석으로 兩親의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시며 언제나 兩親께 至大하며 安心하시게 奉養을 잘 하시여 孝道하시였습니다.

每年 舊正이되면 正月初3日부터 승찬을 차려 洞里分를 待接한 후에 面內 老人들을 초청하여 接對(접대)한 다음에는 面內 기관원들을 待接(대접)를 한 후 다음은 洪城邑內 기관 직원들 待接하고보면 正月 13日이 지나야 待接을 다 마치게 됩니다. 每年 年例行事로 待接하는 일은 희귀한 일입니다.



每年 春分이면 洞里 인근에 가난한 가전들을 골라서 自己집으로 오라고 하여 광의 벼섬을 내놓고 食口에 비하여 食량을 분배하여 주시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 面內 面民들께는 기민을 주시고 특히 한재가 심할 때에는 家族들은 죽을 먹고서 가난한 가정을 食량을 분배하여 주시였습니다.

나의 韓性東(한성동)은사

선생님은 경기도 장단에서 1895年度에 出生하시여서 12才 때에 1880年度에 洪城으로 落鄉(낙향)하시여 1887年 3月

에 洪城 보통學校로 入學하여 優秀한 成績(성적)으로 卒業하고, 忠南 師範學校 入學하여 熱心히 工夫하여 一等으로 卒業한바 선생님 所願이 山間벽촌에서 가난한 家庭의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指導하시는 것이기에 洪城郡 구항면 태봉리 벽고개 강습소를 설치하여 주야로 열심히 학습, 예절, 산업 發展을 數年間 熱心히 指導努力하시어 태봉리 一대 부근 洞里가 文化마을로 發展이 되었습니다.

洪城郡 金馬面 竹林里에서 居住하시던 李琬壽(이완수)氏 벽고개 강습소에 入學하고 修學하신중에 韓性東선생님을 모시고서 교육사업을 決心하시고서 부친과 진지하게 相議하고 나서 한선생님하고 상의한후 후임자를 결정한후에 李琬壽(이완수)氏는 父親 李魯胤(이노운)任과 말씀을 한 후 쾌히 승락을 하시고 本人이 去處(거처)하시는 3칸 사랑방과 4칸 마루 한채를 우선 教育場所를 제공하시어서 이완수氏는 고마운 父親의 의도와 같이 감사하며 한성동선생님을 모시고 培養學堂(배양학당)을 創設(창설)



한바 修學生 男女間 十名入學함으로 주야로 한성동선생님 內外分이 教育을 하심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各處에서 나이가 15才以上되는 修學生이 많이 오게되니 안 5칸 마루를 교실로 개방하였고 學生이 점점 많아 교실을 증축하고 운동장

을 확장하여 修學生이 不便없이 李魯胤(이노운) 門長任께서 독단으로 教育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不便이 없도록 여건을 마련하시어서 수많은 人材를 배출하였습니다.

나의 은사 한성동 선생님의 지극히 孝行을 하신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은사 先生任은 성실, 근면, 봉사, 애국정신이 투철한 心念을 갖이시고 철투철미하게 行動하시는 性品입니다.

한선생님의 父親께서 50代에서 下世하여서 한선생님께서 부친의 生存時에 孝道를 다하지 못한것이 철천지 限이 되어 주야로 노심초사하시었습니다.

片母를 모시고 있으니 片母任께 지성껏 奉養(봉양)을 하시고 신상의 安心은 勿論이고 每日 午後 6時가 되면 自轉車를 타고서 洪城邑에 가서 片母께 맛있는 찬을 사다가 奉養을 꼭 하시었습니다.

1932年度에 老母께서 와병(臥病)하시어서 至城껏 藥을 잡수게 하여도 점점 병환이 위중하시어서 잡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복숭아가 잡수시고 싶다하니 때는 마치 冬至때라.

한성동선생님 內外分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生覺을 하시다 이 엄동설한에 복숭아는 시장에는 도저히 없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內外分께서는 每日 냉수로 목욕하시고 주왕(장광)에도 냉수, 직(청수)을 놓고서 天地神明께 어머님께서 복숭아를 잡수시고 싶다고 하니 꼭 점제해 달라고 지성껏 每日 內外分이 축원한바 7日후 午前 12時에 잠시 잠이 들어서 고단히 잠자는中 白髮老人이 나타나 네가 하도 孝誠이 至極하니 복숭아 있는 곳을 알려 줄테니 어머님께 奉養하라 하시어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 처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하시고 時間은 午前 1時30分임으로 內外分



께서 등불을 준비하여 등불을 갖이고 白髮老人이 알려주신 앞山 골짜기에 가보니 복숭아 나무 1주가 있는데 복숭아 3개가 달려서 복숭아 3개를 따서 갖이고와 어머니께서 복숭아를 조금씩 조금씩 잡수시어 복숭아 3개를 다 잡수신 후는 어머니께서 병勢가 점점 차도가 있어서 10일이 지난후는 병세가回復하시어 2年間 건강하게 生活하시었다.

2년이 지난후에 한성동 선생님의 老母께서 臥病中 內外分이 갖은 至誠을 다하시어도 百藥이 無效임으로 병세는 점점 위중하시어서 下世할 지경이라서 한 선생님께서는 최후의 方法을 生覺하신 結果가 어머니께서 저를 나 주신 허벅지살을 떼어서 本人이 살을 난도하여 갖은 양념을 넣고서 졸이고 그 물을 수저로 어머니의 입에다 넣어 들이고 그 멸국을 잡수시고 나서 정신이 回生하시어 살고 기까지 잡수시고 그 후에 그 맛있는 고기를 더 잡수시고 싶다고 老母께서 하시었다. 한 선생님께서는 허벅지살을 칼로 베고 솜과 창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치료를 本人이 직접하시고 2日間 조리를하시고 學生들을 지도하시었다.

老母께서는 아들 허벅지 살고기를 잡수시고 병환이 回生하여 3년간 건강하게 生活하시다가 下世하시었다.

한성동 선생님의 內外分이 孝誠이 至大하시어 老母께서는 生命을 5年間 연장하신 경우는 本人 이견엽이가 한성동 선생님께 修學時節이며 산 證人입니다.

洪城郡 金馬面 竹林里 李魯胤 門長任의 父子께서 내 故鄉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心熱을 경주하시어 노심초사 하시며 잘살기 운동을 努力하시는 중에 농촌진흥회장의 勸諭를 맡으시고 한성동선생님은 총무를 담당하고, 父子가 心熱을 경주하여 문맹자가 1人도 없게 퇴치하고, 가마니처리, 축산장려, 퇴비

중산, 쌀 더 소출내기 장려를 하여서 郡內1等상과 道內 1等상을 수상하여 洞이 文化와 經濟發展이 잘 되어서 잘사는 培養洞이였습니다.

李魯胤 門長任, 李琬壽 父子分께서는 한성동선생님의 老母가 下世하신 3年상 후에 李魯胤 會長任과 李琬壽(이완수) 父子分이 孝行이 하도 至極하시어 이 世上에 많은 본이 되게 하시고 金馬面長, 金在鉉하고 相議한바 당연히 孝行비석을 面內 주민 일동이 한성동 선생님의 孝行이 꼭 立石하여 함으로 誠金을 내놓고 面內分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李魯胤 會長 父子分께 誠金을 내주시었다.

日本時代 가장 훌륭한 洪城郡守는 李榮台인데 이 郡守는 日本 東京大學에서 首席으로 卒業하고 고시를 合格하시어 洪성군수로 부임하시여군의 行政에 불철주야 善行하신 有名한 李榮台 郡守입니다.

1939年 3월에 李魯胤 會長께서 金馬面長, 金在鉉씨와 같이 洪城郡守 李榮台에게 그 孝行경위와 面內 誠金額數(성금액수)를 말한바 李榮台郡守께서 이 世上에서 大孝子요, 우리 郡內 大 行事로 하기로 결의하고나서 孝行碑를 맞추고서 立石은 1939年 5월에 洞入口 가진개 道路옆에다 位置(위치)를 잡고서 郡內에서 大 行事로 수천명이 參席하여 孝行碑를 立石하였습니다. 現在는 金馬面 철마산에다 3.1운동 애국가 공훈비석 탑과 봉화대를 세우고서 李魯胤(이노운) 父親 李仁植(이인식) 善德碑하고 같이 韓性東 孝行記念碑를 金馬 철마산 공원에다 永久히 安石하게 되었습니다.

洪城郡 金馬面 竹林里 培養洞에서 1912年 10月 11일에 出生하시었고, 당년은 83才입니다.

姓名은 李琬壽(이완수)이고 李魯胤 會長任의 長男입니다.



이완수는 구  
항면 태봉리  
벽고개 강습소  
에서 한성동선  
생에게 修學하  
고나서 한성동  
선생님을 자택  
으로 모시고  
그 父子分이  
培養學堂을 創  
設하고나서 서

울 中東學校를 入學하여서 工夫하는 中  
에 전라남도 광주여고에서 11月 3日에  
學生義舉가 發生하여서 全國적으로 學生  
들이 日本人 헌병, 경찰하고 결사 투쟁하  
는데 이완수가 주모자가 되어서 적극 활  
동을 하시다가 최후에는 종로경찰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  
시였다.

그 후부터 반일 사상이 강하시고 식민  
지 해방이 되어 우리 자유 주권을 찾아  
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갖고서 철도청으  
로 취직을 하였다. 왜냐하면 애국지사들  
과 연락하기가 좋은 곳이어서 철도청에  
서 근무하게 되었다. 기회를 봐서 上海  
임시政府 金九先生과 조소황, 엄황섭 임  
시정부하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다가  
1945年 8月15日에 解放이 되어서 임시  
정부가 入國하여서 金九선생님 中心으로  
한독당을 조직하여 金九선생과 같이 많  
은 노력을 하시다가 金九선생이 변사를  
당한후에 고향으로 은거를 하시였다.

李琬壽氏가 生覺하시기를 中年時節에  
培養學堂을 創設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  
하다가 培養學堂이 없어지게 되어서 培  
養國民學校나 創立하자는 각오를 갖고서  
해당 住民들과 긴밀히 相議하고서 數地  
를 내놓으시고 初代 추진會長을 맡아서  
住民들과 같이 혼합일치하여 學校을 完  
成하고나서도 學父兄會長으로 數年間 物

心兩面으로 많이 회사하신 培養國民學校  
의 제1인 창립자 이완수회장입니다.

李東壽(이동  
수)장군께서는  
1922年 4月 16  
日 出生 父親  
이노운회장님의  
차남입니다.

이동수장군은  
유아때부터 明  
朗하고 쾌활하  
며 근면 誠實  
孝誠 순직 청백한 性品이었다.



洪城 國民學校를 入學하여서 熱心히  
工夫을 하다 4學年때에 서울(京城) 마포  
普通學校로 전학하여서 卒業을 하고 培  
材高普(배재고보) 學校를 卒業하고나서  
日本京都 立明大學校에 入學을 하였다.

때는 마치 제2차 대전 직전 동아전쟁  
日本人 政府에서 韓國人을 지원兵을 한  
참 모집하고 나서 學徒兵까지 강제모집  
을 할때가 4學年 卒業班 때에 不得已 學  
徒兵으로 出兵하여서 中國으로 전속이  
되어서 九死一生하여 광복군으로 입대하  
여 전쟁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복군  
과 같이 귀국하여서 고향 洪城郡 金馬面  
竹林里 自己집에다 애국청년회를 조직하  
고서 운동을 하다가 후임자에게 인계하  
고나서 대한민국 육군사관에 入隊하여 3  
기로 卒業하였다.

兵科는 경리장교로 되어서 육군 本部  
사령부 사단을 요소에다 창설을 하고,  
육군 경리단장때에는 박정희 최고위원이  
되어 자유당, 민주당 때에 부정부패로  
금전을 착치한 자를 색출하여서 國家發  
展에 기여히 使用할 계획으로 박정희 최  
고의위원님께서 3次까지 이동수 경리 단  
장을 심방하심으로 승락한후에 人事감사  
권을 요구한바 박최고위원께서 일체를

다 위임을 하신다고 하시며 승낙한후에 한국에서 재정 경리에 제일 우수한 80명을 선출하여서 8개반으로 조직한 후에 축재한 사람들은 自己사업을 운영 할 만큼 남기고 양심적으로 국가에 납부를 하게 조치한바 그 금액으로 國家發展에 기여하게 박대통령 제일공화국의 發展에 始道를 하였다.

이동수장군이 육군 本部 경리감으로 재직中에서 本人 이견업이가 심방하여서 教室 不足의 애로를 相議한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과 의논을 하여서 僻教室를 증축하여 주겠다고 하시더니 1966年度에 갈산면 광성국민학교와 금마면 培養國民學校로 各 3개 教室을 증축하여 주어서 교실난을 해소하여 어린이들이 안정하게 工夫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었다.

1969年度에는 대한민국 증권 이사장으로 在職中에 金馬面 自己고향에 화랑리 간이 기차역에서 금마, 흥북住民들이 기차타기가 많이 不便하여 화양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통부 長官과 철도청장에게 부탁하여서 1972年 2月 1日에 준공하여서 住民들이 便利하게 生活을 하게 되었습니다.

現在 驛長 안상운 부역장은 신정호께서 華陽驛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이사장께서는 재선하시어 8년간 증권에 發展을 기여하여 증권이 승왕한 것은 이동수 이사장의 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동수 장군께서는 황의政承과 같이 生活을 하여서 자기집을 사지 못하고 세집에서 생활하는 중에 박대통령께서 소문을 듣고 每月 生活費을 하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동수 장군께서는 대한민국의 제일 청백한 장군이고 군무를 창설, 육영사업, 지역의 봉사, 증권 發展의 至大한 업

적이 大 혁신으로 귀감이 되는 이동수 장군님입니다.

상기와 같이 네분은 본인 이견업이가 지역에서 업적이 숨은 인물이라서 독자에게 광대히 홍보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과 같은 行動과 實踐을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홍주의 무신도 (巫神圖)

허 규

막연히 무속에 관한 자료에 관심을 갖고 무턱대고 모아두었던 자료중 무신도만 정리하여 소개해 본다.

무신도를 이해하고자 열화당의 김태곤 저 「한국무신도」를 중심으로 「조선무속의 연구」등 관련서적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졸고는 그들의 논문을 도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름을 밝혀두며, 잘못된 부분은 언젠가 전문가의 손을 거쳐 홍주의 무속을 재정립시켜 줄것을 기대해 본다.

우선, 무신도를 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것은 무신도가 오래되어 낡거나 훼손될 경우 세척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기존의 무신도를 소각한후 그 무신도를 모본으로 새로 그려서 사용하는 관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무신도가 넘겨지는 것은 금지 되고 있었다.

한때는 神으로 신앙되던 지엄한 존재였기에 함부러 할수도 없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회생활의 발달과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무속의 쇠퇴가 우리주위에서 무신도가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무신도를 신으로 섬기던 늙은 무당들은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고, 강신에 의한 강신무(降神巫)들의 무신도 봉안 전통도 맥을 잇지 못하는 실정에 神病(신병)을 통해 신의 실재를 체험한 강신무들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강신체험을 통해서 무당이 된 경우가 지배적인데 홍주지역 역시 세습무보다는 강신무가 월등히 많았고, 오서산 밑 광천에는 100여호에 이르는 무속인들이 살고 있으며, 홍성의 주산인 월산에는 지금도 홍가신굿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무신도는 흘러간 세월속의 유물과 같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신도에는 神格別(신격별)로 天神, 日月星辰, 地神, 山神, 龍神, 佛教神, 將軍神등 무려 100여종류의 무신도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자 소장 무신도도 이에 따라 분류해보면 산신도 3종, 불화형 무신도 4종, 호구아씨도 및 용왕도로써 다음과 같다.

### ① 산신도



▲자료1 산신도

산신을 봉안한 사찰의 당우를 산신각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사원 특유의 전각 가운데 하나로써 한국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일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관계가 없는 토착신으로써 단군신화에서 산은 신의 강림처이면서 아울러 신의 주거처로 관념화되어있고, 단군이 죽어서 입산한후 산신이 된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민족신앙에서 당연히 산은 "우주의 배꼽"으로서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던 「환웅전」이 산에 가면 지금의 대웅전과 같이 모셔지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문화의 유입후 토속신앙의 환웅전은 대웅전으로 전용되었고, 환웅전내의 단군신상은 산신각으로 밀려나 불교의 호법신중이 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하근기 사람들을 위한 방편으로 산신각은 건립되어 산신신앙으로 이어진다.

산신도는 자료1과 같이 오래전부터 전

▼자료2 산신도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산신제나 동제의

해 오 는  
민 족 의  
산 신 신  
앙 을 불  
교 에 서  
수 용 한  
뒤 산 신  
을 인 격  
화 하 여  
묘 사 한  
불 교 화  
가 있 고,  
자 료 2 와  
같 이 마  
을 의 수  
호 신 인

일환으로 행해지는 산악신앙의 변모된 형태로서 전해지는 마을뒷산의 산신당에 모셔져 있던 산신도가 있다.

또한 자료3과 같이 강신무의 신방에 산의 신격으로써 인간을 보살펴주는 신으로 신앙되던 산신도가 있는 것이다.

자료1의 산신도는 불화를 그리던 범어의 솜씨로써 선이 가늘고 정교한데다 구도와 공간배치가 짜임새가 있으며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특히 산신할아버지의 상투는 유교식으로써 조선말의 전형적인 산신탱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료2는 민간화공이 그린 탓에 불화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적색은 거의 없이 백색, 남색, 황색등 색상이 통속적이고 화필이 둔하면서 시대적으로도 왜정 이후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 원근법의 사용등 서양화법이 가미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자료3 산신도



자료3은  
비록 단순  
하기는 하  
지만 안료  
도 석채를  
사용하여  
전통을 고  
집 했고,  
호랑이는  
도식화되  
었지만 전  
통 민화에  
서만 느낄  
수 있는  
해학의 잔  
재가 남아  
있는 민화형의 산신도라 할수 있다.

지역수호신으로써의 산신은 서낭신과

겹쳐서 동신 곧 마을신으로도 섬겨졌고, 동신제, 서낭굿, 별신굿, 당상굿등의 主神(주신)이 되어 민간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불교에 편입해서는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산신기도가 행하여져 이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산신도를 볼수있게 되었다.

## ② 무속불화



▲자료4 탕 화

관세음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불교신앙이 민간신앙의 형태로 토착화되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면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조선조의 억불숭유정책은 과도한 세금과 잡역을 스님들에게 부과하여 도저히 사찰을 유지할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연히 허다한 사암(寺庵)이 공찰(空刹)이 되어 폐허화 되었고, 부처님의 절대적인 자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권능을 실행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은 하근기의 중생들과 어울려 무속인의 숭배대상이 되었다.

제석천왕 역시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의 주인과 제석천을 동일시 하였으므로 민간신앙에 자연스럽게 등장되었고 결국 무속인들의 신방에 수호신으로 강림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료4에는 화기도 쓰여있고, 화공의

이름도 밝힌 점이 불화의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몰락한 암자에 봉안되었던 탕화로 추정할수 있지만,

자료 5 는 민간화되어 크기 또한 무신도에서 흔히 접하는 사이므로 줄었

들었으며, 인물표현 역시 민화풍으로 그려졌다.

얼굴이 괴이한 도깨비형상을 한 신중이 등장하여 신비한 힘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등 불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

불교의 신장들이나 유교의 선비상들이 존재되고, 급기야는 자료6에서와 같이 중국의 관운장까지 등장하여 천룡언월도를 들고있는 신장탱화도 출현된다.

실제로 관운장을 모시는 관왕묘는 중국에서는 명나라초부터 일반서민에게 널리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정유의 왜란때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관왕묘가 건립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자료5 탕 화





▲자료6 탕 화

관운성제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호국정신과 관왕의 충의정신은 유교사회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에 충분했고, 관세음보살보다는 실질적인

무력을 동원할수 있다는 시대상황과 영합되어 망국의 한을 달래주는 신장으로 자리잡아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던 것이다.

무속은 서민들의 고통을 대신 풀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수호신을 원했고, 각종 신통력을 사용할수 있는 영력이 높은 신이 강신되어 육신통을 부릴수 있는 무당이 요구되었다.

자료7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는 절간에서가 아니라 무당집에서 대할수 있게 되었고, 석가부처가 즉 나(我)라고 호언하는 세기말적인 시대상과 야합하여



▲자료7 석가모니도

민심을 선동하니 무속은 정통성이 상실되고 외래종교의 유입과 더불어 미신으로 전락되어 사양길을 접어드는 것이다.

### ● 호구아씨도

천연두를 앓게 하는 女痘神(여두신)으로써 별상과 같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神에게 치성을 드렸다.

자료8의 무신이 들고 있는 부채에는 三神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



▼자료8 호구아씨도

로 쓰이는 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실제로 부채는 접었다가 쉽게 펴고, 편것을 쉽게 접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만물이 성쇠하는 이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고깔을 쓴 삼신은 전통적인 삼신사상을 표상한것으로 볼 수 있다.

삼신할머니의 점지아래 태어난 모든 중생의 생사여탈권을 관장하는 神으로써 일생에 꼭 한번은 앓고 넘어가야만 했던 천연두를 호구아씨 마음대로 했다면 당연히 치성을 안드릴수 없는 생명의 신이었다 할것이다.

## ● 용왕도

용은 민간신앙에서 비를 가져오는 우사(雨師)이고 물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수신이며 사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주는 벽사의 선신(善神)으로 섬겨져 용신제, 용왕굿 등이 행해졌다.



▲자료9 용왕도

마을의 평안등을 기원하던 용왕제에 사용되던 용왕도라 한다.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반듯이 서있는 용신과 바다와 용이 그려져 있으며 채색도 석채를 사용하여 조명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무신도라 할 수 있다.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등의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재래종교를 꼽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무속을 거론하게 되며, 한국 종교화의 원류를 따진다면 역시 무신도를 최초의 종교화로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신도에 관한 관심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었고, 무속의 종

교적 특성 역시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를 계기로 홍주 지방의 무속과 무신도의 유형이 전문인력을 통해서 정리될것을 기대하면서 줄고를 끝맺고자 한다.





# 향토사 정보

복 익 채

## ● 홍주성의 동학농민 전쟁

· 6만명전투 3만명 전사

지금부터 꼭 1백년전 1894년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쫓겨난 농민들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든 동학혁명으로 이나라 역사를 뒤흔들때 충남 서북부지역의 중심지인 홍주(현 홍성)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접전이 벌어졌다.

갑오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때 남북에서 합류한 농민군의 주력이 공주로 진격하고 있는 동안 홍주, 예산동지에선 박덕철, 박인호가 7천군을 이끌고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웠다.

북접교단의 영향아래 있는 박인호 농민군은 태안, 서산에서 출발하여 해미, 면천, 신례원, 온양, 천안 코스를 거쳐 경성을 함락시키고자 진격하던중 후방의 가장 강력한 진입부대인 홍주성을 먼저 공격하려다가 홍주목사 이승우 軍과 일본군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고장 홍주인들은 일부는 관군에 일부는 농민군에 가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 농민 전쟁과 관련된 금석문 자료 14질의 근거로는 비석 13질, 정려문 현판 1질 중 8질이 다음과 같이 홍성군내에 소재하고 있어 가장 치열했던 홍성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 ☞ 行牧使兼招討使 李勝宇邪善政碑  
갈산면 가곡리 경노당 내
- ☞ 觀察使 朴公齊 純愛民 善政碑  
갈산면 가곡리 가곡경노당 내
- ☞ 行 牧使兼 招討使 李公勝宇 百世不忘碑  
광천읍 벽계리 둔전
- ☞ 行牧使兼 招討使 李公勝宇清德永墓碑  
홍동면 신기리
- ☞ 湖沿招討使 李公勝宇 紀蹟碑  
구항면 오봉리 면사무소 옆
- ☞ 贈軍務參議 金公秉暎公文碑  
광천읍 웅암리
- ☞ 義士 韓基慶旌闈記 홍성읍 고암리
- ☞ 七義碑 홍성읍 대교리 홍주향교 앞

「자료」

이도행: 석사학위 논문, 손규성: 하늘의 북을 친 사람들, 홍성군지, 김갑현의 소장 각종 자료

.....(주간홍성 94년 2월 21일)

## ● “忠節의 뜻 밝히던 애국先烈”

충남 서부지역의 교통요충지이자 제2의 도청소재지로 널리 알려진 洪城 충절의 고장답게 홍주의사총을 비롯하여 백야 김좌진 생가지, 만해 한용운선사 생가지, 고려 명장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등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관광지라기 보다는 선열들의 뜻을 다

시 한번 생각하는 가족단위로 자녀들의  
교육과 관광을 결합할 수 있다.

.....(중도일보 94년 2월 22일)

### ● 金佐鎭장군

1911년 재판기록문 공개

國編 朴永錫위원장

白治 金佐鎭장군 연구논문”

22살때 항일근거지 마련 모금운동 투옥  
암살범 朴尙實의 본명은 李福林으로  
밝혀내 1930년 초기 독립활동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재판기록문이 발견됐다.  
또 김좌진장군을 암살한 주범으로 알려  
진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 화요계 단원  
박상실의 본명이 이복림이라는 것도 64  
년만에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사편  
찬 위원회 박영석 위원장이 김좌진 장군  
의 가계, 국내외 독립활동 피살배경 등  
을 집중연구한 논문 「白治 金佐鎭장군  
연구」에서 공개됐다.

.....(세계일보 94년 2월 23일)

### ● 만해 생가, 성역화 중단 위기

“내무부 12억지원 방송후 3억만 보내  
와 마무리 위해 중앙정부 지원 시급”

만해 한용운 생가의 성역화 사업이 중  
단된 위기에 처했다. 92년 3월 6일 만해  
생가복원 준공식후 6천여명의 부지를 마  
련하고 여기에 사당과 기념관 묘소이전  
주차장등을 마련해 선생의 애국정신과  
사상등을 선양할 계획으로 성역화 사업  
이 추진돼 왔다. 이같은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은 13억원의 예산  
이 소요돼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2억원  
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간홍성, 94년 3월 7일)

### ● 홍주성내 관청들 이전 검토

이상선 군수 극비 지시

빠르면 경찰서가 이달중 교도소앞으로  
이전할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홍주성내  
관공서 모두 홍성읍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군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이같은 여론  
은 우선 군청의 이전이나 막대한 재원마  
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읍사무소  
이전도 사정은 마찬가지나 경찰서 자리  
로의 이전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읍사무  
소 자리엔 남산공원내에 있는 문화원 선  
거관리 위원회, 보훈회관을 옮겨야 한다  
는 것, 현재 홍성중학교 내로 옮기기 위  
해 착공된 교육청 자리에는 세무서를 옮  
기고, 법원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옮길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 일단은 남산공원  
내의 관공서는 모두 옮기게 된다는 것.

이같은 여론이 분분해지자 이상선 군  
수는 이두용 재무과장에게 가능성 여부  
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간홍성, 94년 3월 7일)

### ● 주류성 유물조사 착수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회장. 배동순)  
회원 20여명은 지난 10일 홍성읍 한백  
식당에서 월례회를 갖고 백제 부흥군의  
결전지였던 주류성 유적지인 장곡면 일  
대 성지에 대해 유물조사에 착수하는 한  
편 주류성 안내도를 제작키로 했다.

.....(주간홍성, 94년 3월 7일)

### ● 周留城 고증작업 활발

홍성군과 지역 향토사학가들이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적지인 주류성에  
대한 고증 작업을 활발이 전개.

학계와 지역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성군은 23일 문화재 관리국 김동현 문화재 보전실장, 이상선 홍성군수, 이병철 군의장, 각급기관장, 주민 150여명이 참석 현지 답사에 실시했다.

..... (중도일보, 94년 4월 26일)

● 옛 백제 부흥군 지취 찾는다.

“문화재 관리국등 홍성 답사”

백제부흥군의 “홍성 주둔설”을 고증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 활동이 시작됐다. 홍성군(군수 이상선)은 지난 23일 문화재 관리국과 지역 향토문화 연구회 기관 및 단체장등 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광성리 일대 축조된 홍주 주류성을 답사했다. 이번 답사는 그동안 “設”로만 떠돌던 백제 부흥운동지(주류성)를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발굴 복원함으로써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 (동아일보, 94년 4월 28일)

● 장곡 주류성 고증 활발

“문화재 관리국

현지 답사 학술토론회 계획”

장곡면 산성리 일대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에 대한 고증 및 국가문화재 지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성군은 지난달 23일 문화재 관리국 김동현 보전 자료실장 윤홍노 전문위원 그리고 군내 홍주문화 연구회 회원, 군의원, 기관 단체장등 백여명을 초청 장곡면 산성리에 축조된 주류성 현장을 답사했다.

..... (주간홍성, 94년 5월 2일)

● 1백년전 고증 끝난 문제

“김정호(대동지지)에 주류성은 홍주명시” 아직 주류성 정설 없는건 사학계 책임. 수만명 수장시킨 일본도 찾기 나서 “분명한 기록 김정호 유일” 천사백년간 지명 간직 예산의 향토사학가 박성홍씨 20년간 답사.

당진서 피성, 백강등 발견.

홍성인 모두 백제 부흥군 후손.

역사 찾기 나서야……, 이에 대하여 김동현 실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이 좁은 지역에 수만명 수십만명의 백제부흥운동군이 싸웠다면 여러분은 모두 그 후손일 것으로 조상의 올바른 역사를 찾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답변했다.

..... (주간홍성, 94년 5월 9일)

● 「역사 현장찾기」로 백제 재조명

91년부터 문화유적 복원 역점 추진을 백제부흥 거점 주류성 고증 활발 현지 답사 학술 토론회로 문화재 지정 작업 성삼문 생가 용봉산 연결 서부권 관광 개발.

홍성군은 백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의 현장찾기”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천3백여 년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임존성과 함께 3년간의 치열한 백제부흥전을 전개하였고, 백제부흥군의 지휘본부이자 백제 유민에 의해 옹립된 풍왕의 왕도이기도한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광성리 일대의 周留(州柔州流) 城群이 바로 그곳이다.

이상선 홍성군수는 지난 91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문화유적 복원 사업인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생가 성역화 사업과 지난해 준공을 본 홍주

의사총 성역화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주류성 고증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중도일보, 94년 6월 1일)

● **홍주 의병 닷 추모**

의사총 성역화 후 첫 제향

병오 항일의병 순국 88주기 제향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홍성읍 대교리 홍주의사총에서 거행됐다. 지난해말 37억 원을 투입한 성역화 사업 완공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제향은 김시복 국가보훈처 차장, 백기현 광복회 사무총장, 박찬무 충남도 부지사, 안선영 유족회장과 이상선 군수를 비롯한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 학생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사 제향과 묘소헌화 분향순으로 시종 경건하게 진행됐다.

..... (주간홍성, 94년 6월 7일)

● **특별인터뷰 이완구 충남지방경찰청장**

단속보다는 대국민 서비스로

한국 경찰의 총수냐?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냐?를 놓고 끊임없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완구(43) 치안감이 지난 2일 우리고장 출신으로는 처음 충남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운동에 앞장섰던 이광윤선생의 11대 손으로 1950년 6월 2일 태어난 그는 덕명국교를 47회로, 광천중학교 18회로 졸업하고, 서울 양정고등학교 3학년때 사법행정 예비시험에 합격, 성균관 대학 1학년때 행정고시 1차, 2학년때 행정고시 15회를 최종합격했다. 홍성군청에서 수습사무관을 지낸후 77년 돈없고, 뺨없는 억울한 사람을 돕는게 매력이 있어 경찰에 투신했다.

81년 서른한살의 나이에 홍성경찰서장

부임 고향발전을 위해서 서부지역 민원출장소 면허시험 출장소를 유치하였으나 그후에 면허시험장을 예산에 빼앗긴게 아쉽다.

..... (주간홍성, 94년 6월 6일)

● **주류성 토론회등 23종목 확정**

홍주문화제 9월 28일~10월 1일 개최 찬란했던 홍주문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한 제9회 홍주문화제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전야제 11종목 본행사 23종목으로 개최된다. 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군내 각 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11개 읍,면장등 50명으로 홍주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형군수)를 구성하고 홍주문화제 종목과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의 홍주문화제는

▷ 홍주 주류성 학술 토론회

▷ 최영장군 영신제

▷ 만해 추모 전국 시조 경창대회등 홍성의 역사 유적을 발굴하고 선현을 추모하는 행사가 새롭게 기획돼 주목된다.

..... (주간홍성, 94년 8월 8일)

● **장곡 3.1운동 기념비 건립**

독립운동한 3백여 주민 닳기려 13일 제막 장곡면 기미 3.1운동 기념비가 이달 13일 장곡국민학교에서 제막된다. 이 기념비는 지난 1919년 4월 4일 면내 신평리 매봉재에서 1백여명이 만세운동을 벌이고 봉화를 올린데 이어 4월 7일 면민 3백여명이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지서를 습격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다.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윤익중, 이필봉씨가 해방이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 등 김동화, 한상철씨등 14명이 정부로부터 훈장등 서훈을 받았다.

..... (주간홍성, 94년 8월 8일)

● 유공자 1백명 포상돼야

3.1독립운동 선열 유족들이 기념비 건립  
면민들의 항일의거를 역사에 보전하고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미 3.1운  
동 기념비가 지난 13일 장곡 국교에 건  
립됐다.

장곡의 3.1운동은 향토사학자인 김갑  
현씨와 3.1운동사 연구위원 김용상(월계  
리 출향인)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1백 26명 의거가 밝혀  
지면서 기념비 건립운동으로 승화됐다.

..... (주간홍성, 94년 8월 22일)

● 최영장군 령신제

“신내리는 도당굿 절정”

출생지 고증후 첫공식 행사

우리고장 출신의 “해동명장” 최영장군  
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된 (최영장군 령신제)는 문화  
제 추진위원회측이 어느종목보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는 것이어서 자못 기대가  
크다.

..... (주간홍성, 94년 9월 26일)

● 홍주류성 고증 학술 발표회

AD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의 침공으  
로 백제가 멸망하자 전국에서 나라를 찾  
으려는 항전이 벌어져 663년 겨울까지  
3년동안 계속되는데 이를 백제 부흥전이라  
한다.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의  
자왕의 장자 풍은 조국이 멸망하자 일본  
군 5천 병력을 이끌고 환국해 주류성에  
입성 복신, 도침등의 장수들과 부흥전을  
지휘하니 주류성은 부흥군의 총지휘 본  
부이자 사비성 함락이후의 백제 왕성이  
기도 하다. 주류성은 이토록 중요한 유  
적지임에도 아직 그 위치가 밝혀지지 않  
아 80년 가까이 학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주류성 위치에 관한 기존의 학설  
로는 “한산설”, “부안설”, “연기설”이  
있는데 이 자리에 20년간 연구한 “홍주  
설”을 발표하고자 한다. 고산자 김정호  
는 130년전(대종지지)에서 홍주목 본  
백제 주류성(洪州城 本百濟 州留城)이라  
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와 산성리에 있는 “학성산성”과  
“얼방성”(석성) 그리고 인접한 두 산성  
이 포용하고 있는 “대부동분지”를 총괄  
지칭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 (주간홍성, 94년 10월 3일)

● 백제(百濟)최후의 王城자리  
周留城은 洪城일대 穴窟

대동 大東地志(일본서기)

내용근거로 제시

당시 인접지역 거리 측정 결과 가장 근접  
백제멸망이후 부흥군의 항전 총지휘  
본부이자 사비성 함락뒤 최후 왕성이었  
던 주류성(周留城)의 정확한 위치는 어  
디인가? 주류성을 소재지를 밝혀내기 위  
한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려 이분야  
연구에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

주류성 소재지 파악은 韓·中·日 3국  
의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  
는 일이며, 삼국사기에도 주류성의 홍성  
근거설을 조선후기 대지리 학자 김정호  
의 大東地志 권 5에서 제시하고 일본서  
기 권 27의 내용도 이를 입증한다고 밝  
혔다. 김정호는 大東地志 洪州牧條에서  
(洪州牧本百濟 州留城) 唐改之尋州)라  
하였고, 공주목조에는(王文武) 今頁 金  
庾信等 二十人 將軍 興之合 功豆陸尹城  
(今定山) 周留城(今 洪州)라 하였다.

향토사학자 박성홍씨는 인접지역 백촌  
강, 피성, 임존성, 두릉윤성과 연계하여  
봐야 한다고 실측거리를 예로 들었다.

..... (세계일보, 94년 10월 2일자)

● **김갑현씨 홍주문화상 수상**

고대사 연구발전에 크게 공헌  
제11회 홍주문화상은 홍주 향토 문화  
연구회 회원 김갑현(62. 장곡면 도산리)  
씨가 문화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주문화상 심의위원회  
는 지난달 16일 군청회의실에서 심의위  
원을 열고,

- ▷ 문화교육부문 5명
- ▷ 사회봉사 4명
- ▷ 체육진흥 4명
- ▷ 지역개발 1명등 모두 14명의 후보  
중에서 문화, 교육부문에 1명만 대상자  
로 결정했다.

올해 유일한 홍주문화상 수상자인 김갑  
현씨는 88년부터 홍주향토문화 연구회원  
으로 활동하면서 선사시대 고인돌등 선사  
유적 1백여점을 발굴한 것을 비롯, 장곡  
면 월계리 용못마을 마애금석문, 쌍계 12  
경을 발굴했고, 주류성찾기운동에 결정적  
인 단서가 되는 복신굴을 처음 발견하는  
등 고대사 연구에 크게 공헌을 했다.

또한 장곡면 3.1운동 기념비 건립추진  
위원장으로 그당시 희생자 유족을 찾아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 (주간홍성, 94년 10월 3일)

● **향토문화연구회 10월 원례회**

홍주 향토 문화 연구회는 10월 13일  
홍성문화원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홍주 문화제 행사와 관련 학술발표회 사  
후 대책, 최영장군 영신제에 대한 평가  
와 구항면 태봉리 태봉산(純宗胎)에 태  
봉을 답사 근처에 표석으로 4基中 2基의  
火巢碑를 발견 입석년대 지명유래에 대  
한 연구 의례와 동주 최씨 문중에서 이

철학 공보 실장에게 감사패, 전옥진 향  
토문화 부회장에 감사패, 향토문화 연구  
회에서 이종옥 문화 관광계장에게 감사  
패를 각각 전달하고 홍주문화제 성공리  
에 끝맺임을 격려하였다.

● **태봉산 화소비 발견**

방화 경계표석 순종태 매장 입증  
조선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태를 묻  
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구항면 태봉리 태  
봉산 기슭에서 이를 입증해 주는 火巢碑  
가 발견돼 향토사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화소비는 그동안 태봉마을 길  
옆에 묻혀 연원을 알지 못한채 방치 되  
던 것을 전하수 구항면장이 최초로 발견  
火巢碑임을 밝혀내고 원상복귀 시켰다.

한편 지난 11일 火巢碑를 踏査한 배동  
순 홍주 향토 문화 연구회장은 현재 임  
금의 태는 이장한 상태지만 지역사에 중  
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 이같은 지명 유  
래를 후세에 전할수 있도록 안내판이라  
도 설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홍성, 94년 10월 17일)

● **홍주 동학군 영령 위로**

25일 소향리 빙고치에서

100주년 위령제

1백년전 홍성을 중심으로한 내포지방  
의 동학농민 전쟁에 참여했다 산화한 영  
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홍주 동학순국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천도교 동학순  
국 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며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  
부, 내포지방 향토문화 연구 연합회, 주  
간홍성등이 후원한다.

한편, 이같은 주간 및 후원단체들은 기  
념행사가 끝난후(가칭) 홍주 동학 순국백  
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격전지 빙

고치에 순의비 건립 기념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학군 후예들의 참여와 유품 수집에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 (주간홍성, 94년 11월 14일)

● **홍성 동학혁명군 위령제**  
**선열들의 희생 후세에 기려**

빙고치 전투 1백주년

전국서 5백명 참여

홍성 동학혁명군 위령제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전국의 천도교 신도와 내포지방 향토문화 연구 연합회 등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읍 소향리 빙고치(현, 소향가든)에서 거행됐다.

분향과 청수 봉전 심고 위령문 낭독순으로 진행된 이날 위령제에서 천도교 교령 김재중씨는 추모사를 통해 동학혁명을 이땅에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불길로서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빛나는 혁명이라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업적을 후대에 기르라고 강조했다.

● **홍주전투심화 학술발표회**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동학혁명의 홍주전투란 제하의 논문발표에 나선(홍주향토문화연구원) 홍성여중 이도행교사는 충남 서북부지방에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뚜렷한 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 농민군은 홍주목사겸 호연초토사 이승우 군과 이두황의 관군 그리고 적송국봉소위와 산촌대위가 지휘한 일본군과 교전했다며 농민군은 신례원과 예산 산성전투에서는 이승우군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홍주전투에서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천도교 중앙 총부 선도사 표영삼씨의 동학혁

명의 역사적 "배경", 홍주향토문화연구원 주옥로씨의 전통사상과 동학의 이념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는 홍주향토문화 연구회와 내포지방 향토문화연구 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 (주간홍성, 94년 11월 28일)

편 집 후 기

홍주문화를 창간시켜 한바퀴 돌아보니  
이제사 10권이다.

그간 회원님들이나 주위의 여러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꾸려왔는데 이뤄놓은것도 없이 여기서 중단해야된다니 후회막급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홍주문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것은 모두 내탓일 것이다.

딛고 일어나는 계기로 생각하고 새로운 홍주문화를 꿈꾼다.

95년 1월

臥石







卷之二

各軍創守功... 奉寧州... 府用... 撫字... 合... 共... 五...

廣州

山西

各里... 縣... 戶... 口...

山

峯

國

人口... 戶口...

廣

0  
1000